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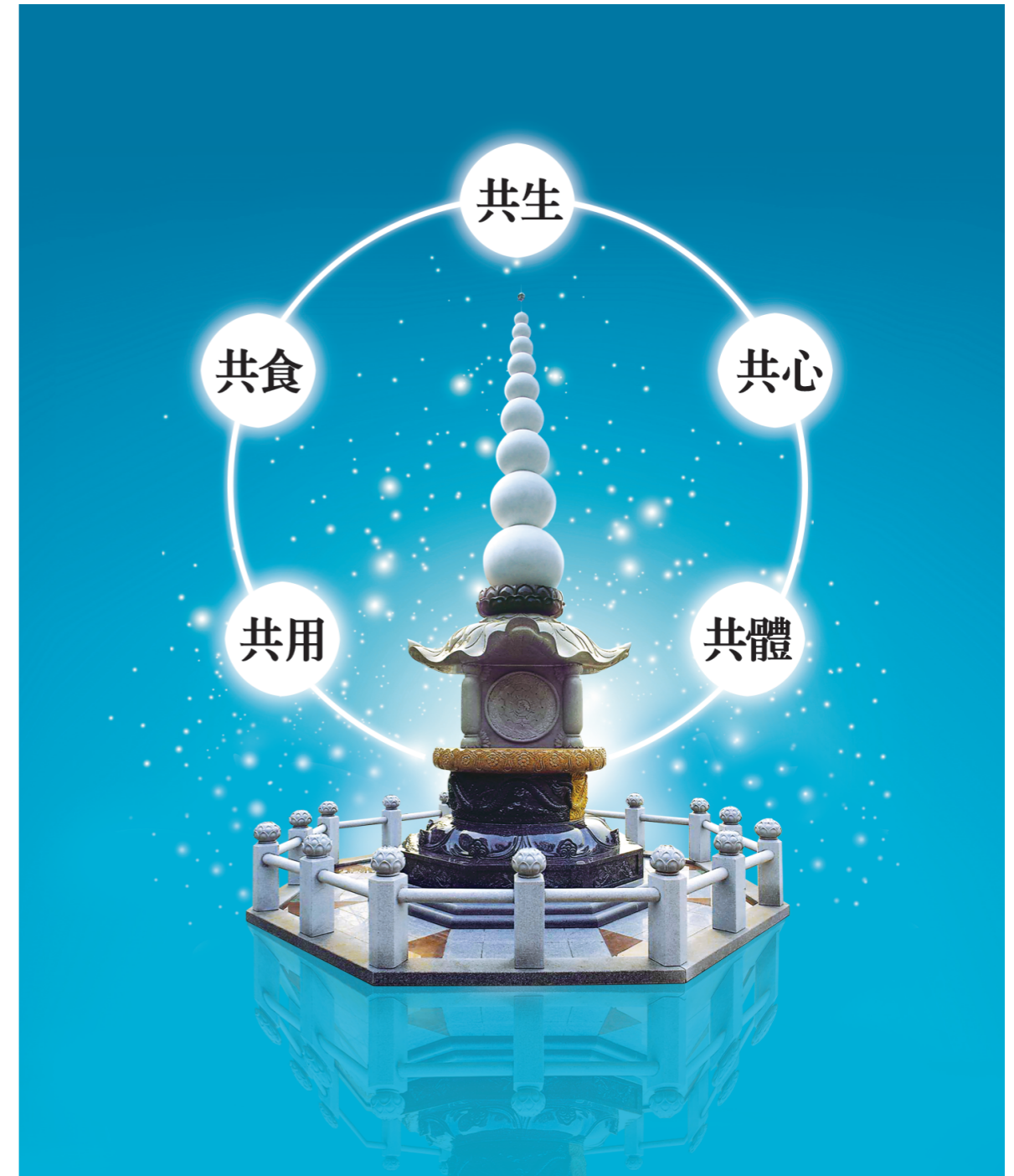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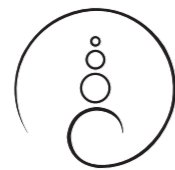
제11회 대행선연구원 계절발표회

2021. 12. 18(토) 13:30-17:40


안양 한마음선원 본원 3층

자기가 저지르지 않은 것이
자기 앞에 오는 일은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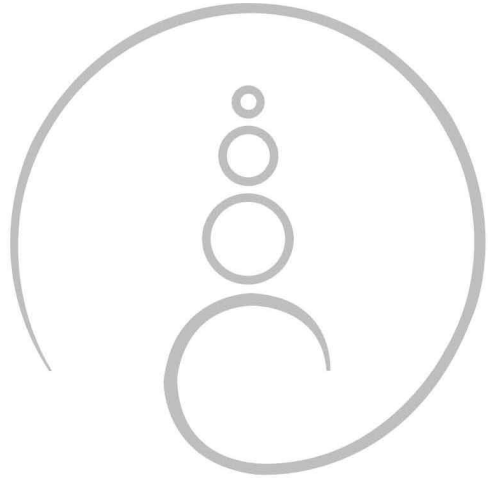
- 대행선사범어 -



대행선연구원
The Center for Daehaeng-Seon Studies



제 11 회
대행선연구원 계절발표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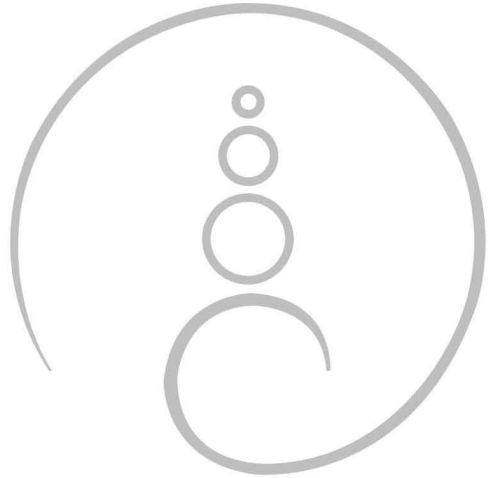


제11회 대행선연구원 계절발표회

- 일시 : 2021. 12. 18(토) 13:30 - 17:40
- 장소 : 안양 한마음선원 본원 3층



시 간	내 용	사회자	
	한마음선원 생중계 링크 https://www.youtube.com/user/HanmaumTemple		
1부 개회식			
13:30~13:50	개회사	혜선스님 (대행선연구원 연구실장)	
	삼귀의례		
	대행선사 뜻풀이 반야심경		
	인사말씀		권탄준 원장
	환영사		(재)한마음선원 이사장 혜수스님
	공지사항		
	사홍서원	집전:혜안스님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원 신도국장)	
2부 학술발표 (각 주제별 : 30분 발표, 각 10분 논평, 50분 토론광장)			
13:50~14:00	제1발표준비		
14:00~15:4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 표 : 조기룡(동국대) · 논 제 : 한마음선원의 지역 친화 포교 활동과 개선방안 · 논평1 : 김응철(중앙승가대) · 논평2 : 이석환(동국대) · 토론광장 	김상영 (중앙승가대)	
15:40~15:50	제2발표준비		
15:50~17: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 표 : 이현중(충남대) · 논 제 : 대행사상과 주인공 관법 · 논평1 : 혜선스님(대행선연구원) · 논평2 : 이상호(서강대) · 토론광장 		
17:30~17:40	폐회식 (마무리 인사)	한마음선원 주지 혜솔스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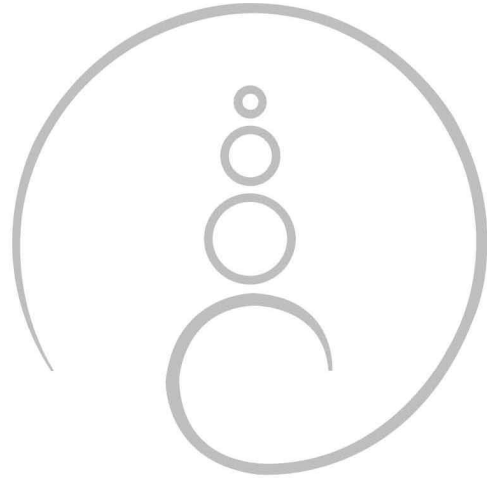
목 차

[제1발표]

- 조기룡 [발 표] 한마음선원의 지역 친화 포교 활동과 개선방안 07
- 김응철 [논평1] 「한마음선원의 지역 친화 포교 활동과 개선방안」 논평문 42
- 이석환 [논평2] 「한마음선원의 지역 친화 포교 활동과 개선방안」을 읽고 46

[제2발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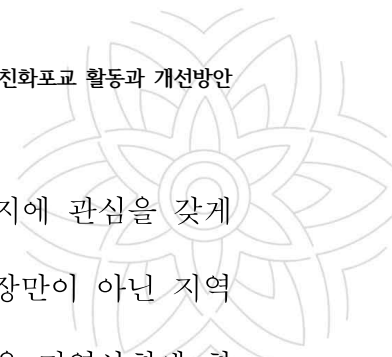
- 이현중 [발 표] 대행사상과 주인공 관법 53
- 해선스님 [논평1] 「대행사상과 주인공 관법」에 대한 논문을 읽고 82
- 이상호 [논평2] 「대행사상과 주인공 관법」에 대한 논평문 90



조기룡 (동국대학교 불교학술원 교수)

한마음선원의 지역 친화 포교 활동과 개선방안

I. 서언	08
II. 이론적 배경	10
1. 지역사회의 이해	
2. 지역 친화 포교의 필요성	
III. 한마음선원 현황 분석 및 안양지역 종교환경 분석	13
1. 한마음선원 현황 분석	
2. 안양지역 종교환경 분석	
IV. 한마음선원의 포교자원 및 지역 친화 활동 분석	18
1. 한마음선원 포교자원 분석	
2. 한마음선원 지역 친화 활동 분석	
V. 한마음선원의 지역 친화 포교 방안	27
1. 생활[문화·복지] 지역공동체운동	
2. 신행[교육·수행] 운동	
VI. 결론	37



I. 서언

한마음선원 안양본원(이하 한마음선원)은 1972년 대한불교회관이라는 이름으로 안양시의 현 위치¹⁾에 건평 286평, 수용인원 1,200명 규모로 창건되었다. 창건주는 비구니 묘공대행(妙空大行, 1927-2012)이었다. 불자들이 한마음선원하면 ‘대행스님’을 떠올리는 이유다. 운문사, 동학사, 청암사, 봉녕사 등이 전통 비구니 사찰이라는 것에 견주어서 한마음선원을 현대 비구니 사찰의 상징으로 인식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다.

한마음선원은 이제 현대 도심사찰을 거론할 때면 빼놓을 수 없는 대형 도심포교당이 되었다. 본고는 한마음선원이 안양에서 행한 지역 친화 포교를 분석하고자 한다. 그 분석의 내용은 한마음선원의 포교가 안양에서 지역 친화적이었음을 당위적으로 규명하는 것이 아니라, 한마음선원이 안양지역에서 행한 포교의 현황과 문제를 지역 친화의 관점에서 분석 후 개선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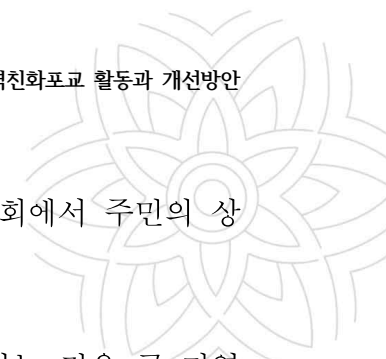
한국불교가 지역 친화 포교를 고민하기 시작한 시점은 지방자치제의 재실시와 맞물린다. 한국사회는 1995년 6월 27일, 4대 지방선거의 동시 시행으로 지방자치제를 다시 시작하였다. 2021년 현재는 지방자치제가 정착되어 민선 7기 체제가 중반을 넘어서고 있다. 지방자치제는 주민들로 하여금 자립적 지역발전에 대한 관심을 증폭시켰으며, 주민들은 지

역사회의 조직 및 단체가 지역발전에 얼마나 기여하는지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이는 종교조직들이 개별 사찰 또는 교회의 성장만이 아닌 지역 사회와 동반성장해야 하며 나아가 사찰과 교회의 성장을 지역사회에 회향해야 함을 시사한다.

사찰과 지역은 서로 의존하고 서로 관계를 맺을 수밖에 없다. 사찰과 지역은 상의상관相依相關해야 존재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찰은 지역 사회와 유리遊離 되어서는 존립할 수 없다. 사찰은 지역주민들이 신도가 될 때 생존과 성장을 이룰 수 있는 것이다. 사찰의 포교가 지역 친화적이어야 하는 이유다. 사찰이 지역 친화 포교를 할 수 있는 대표적인 분야로 문화와 복지를 우선 꼽을 수 있다. 종교는 사회의 문화를 형성해 오는 한편 사회의 복지를 증진시켜왔기 때문이다. 사찰은 문화의 창조, 보존, 전승에 이바지해온 한편 불교의 한반도 전래 이래 사회복지활동을 지속해왔다.

본고는 한마음선원의 문화와 복지 분야에 있어서 포교 활동을 분석 후 한마음선원과 안양 지역사회가 상의상관할 수 있는 포교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한마음선원의 성장이 안양 지역사회에 회향되고, 지역주민들이 한마음선원으로 귀의하여, 한마음선원과 안양 지역사회가 공존 공영共存共榮하는 구조를 형성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이는 지역 친화 포교사찰의 모델을 구축함으로써 사찰의 성장과 지역사회의 성장을 아우르는데 기여하고자 함이다.

1)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 101-60번지 대한불교조계종 한마음선원.



II. 이론적 배경

1. 지역사회의 이해

지역사회란 다른 지역과 구별될 수 있는 독립적인 지역에 모여 살면서[지리적 공동], 주민들이 상호작용을 통해 서로의 생활에 영향을 끼치며[주민의 상호작용], 같은 전통, 관습 및 규범, 그리고 가치 등 정신적 공동영역[공동체 의식]을 형성하는 조직체라 할 수 있다.²⁾ 이같이 지역사회는 지리적 공동과 주민 간 상호작용, 그리고 공동체 의식을 구성요소로 하는 공동체이기에 지역 정서에 기반을 둔 소속감, 일체감 그리고 자발성으로 공동생활을 영위한다.

하지만 도시적 삶의 보편화, 대중사회의 출현 등은 표준화되고 동질화된 삶의 확장을 뜻하는 것으로써 지역별 삶의 차이를 적게 만드는 한편 면대면 관계의 중요성을 반감시켰다. 이러한 현대적 삶의 변화로 인하여 오늘날은 지역 정서가 퇴조되어 과거보다 지역주민의 소속감, 일체감, 그리고 자발성이 약화 되고 있다.

한국사회에서도 지역주민의 소속감, 일체감, 자발성 약화 현상은 존재한다. 그러나 1995년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지역발전에 관한 관심이 증폭되면서 주민들의 지역사회 문제에 대한 관심과 참여가 회복되는 현상

도 발생하고 있다. 즉 1995년 지방자치제 이후 지역사회에서 주민의 상호작용과 공동체 의식이 회복되고 있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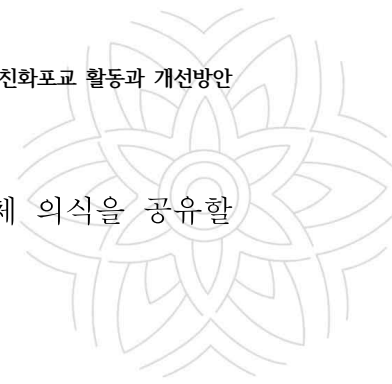
사찰이 지역사회에서 문화를 형성하고 복지를 실현하는 것은 곧 지역주민과의 관계 맺음이다. 이는 지역포교와 다르지 않다. 포교는 사람과의 관계 맺음이 없으면 불가능하며, 그 관계 맺음은 즐거움뿐만 아니라 어려움도 함께 나누는 것이다. 사찰의 문화활동과 복지활동이 그러하다. 이런 과정을 통하여 사찰이 지역과 친화하는 것이고 지역공동체의 구성원으로 자리 잡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찰은 자체의 성장에만 몰입할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를 돌아보고 이바지할 바를 찾아야 한다. 그리고 지역사회가 없다면 사찰도 없다는 지역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사찰의 성장을 지역사회에 회향하여야 한다.³⁾

2. 지역 친화 포교의 필요성

부처님 재세 시, 불교교단은 지역사회 즉 마을 주민들과의 관계 맺음을 게을리 하지 않았다. 승가가 한 마을에 정주하게 되면 주민들과의 상호작용을 유지하면서 공동체 의식을 공유했던 것이다. 부처님을 비롯한 승가의 구성원은 매일 아침 탁발을 통해 공양을 받았다. 그런데 이 탁발은 단순히 음식물을 얻는 행위만이 아닌 지역사회의 삶을 이해하는

2) 참여불교재가연대(사)불교아카데미(2004), 12.,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원(2012), 28.

3) 조기룡(2020), 249.



행위로 이해할 수 있다. 탁발을 통해 마을주민들과 만났고 그 만남을 통해 그들의 삶을 알게 되었던 것이다.

포교는 지역사회 주민들과의 상호작용과 공동체 의식을 이루지 않고는 불가능하다. 현재 대한불교조계종의 사찰에서 신도의 조직 기반이 취약한 곳 중의 하나로 관람료 사찰이 꼽히는 것은 이의 반증이라 할 수 있다. 적지 않은 관람료 사찰들이 관광 온 외지 신도와 관람료 수입으로 사찰의 운영을 의존하면서 해당지역 주민들과의 관계 맺음을 소홀히 하고 있는 것이다. 지역사회와의 관계성 저하로 지역주민들의 신도 비율이 매우 낮은 사찰이 부처님이 행하신 전법의 모습에 부합하는 사찰로 성장할 수 있을지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

유사 이래 종교도 성쇠(盛衰)와 부침(浮沈)을 겪었으며 그 성쇠와 부침은 포교에 달려있었다. 불교도 예외는 아니다. 포교는 지역사회와의 관계성이 확보되지 않고는 이루어질 수 없으며, 불교에 있어서 지역사회와 접촉하는 기초 단위는 개별사찰의 스님과 신도 개개인이다. 사찰의 스님과 신도는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하고 있기에 지역사회에 참여하지 않고서는 포교가 이루어질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사찰은 지역사회와 공동체가 되어야만 한다. 일정한 지역에서 모여 살기만 한다고 해서 공동체의 일원이 되는 것은 아니다. 상호작용을 통해 서로의 생활에 영향을 미치며, 같은 전통·관습 및 규범, 그리고 가치관을 공유할 때 비로소 공동체의 일원이 되는 것이다. 즉 사찰이 지역사회의 공동체 일원이 되기

위해서는 지리적 공동, 사회적 상호작용, 그리고 공동체 의식을 공유할 수 있어야 한다.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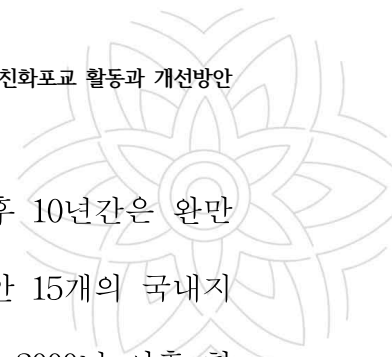
Ⅲ. 한마음선원 현황 분석 및 안양지역 종교환경 분석

1. 한마음선원 현황 분석

한마음선원은 1972년 대흥선사에 의해 창건된 후,⁵⁾ 1982년 1월에 대한불교 조계종에 사찰 등록을 하여 공찰(公刹)로서 활동을 시작하였다. 현재 한마음선원은 경기도 안양시와 서울의 경계선에서 버스로 한 정거장 정도의 거리에 경수산업도로(1번 국도) 변에 위치하고 있다. 전철 1호선 관악역에서 도보로 5분 거리로 전철을 이용할 경우 2번 출구로 나와 대로변으로 나오면 길 건너 구룡주공그린빌아파트 방향으로 500m 정도의 거리에 있다. 1987년 9월에는 본원 신관을 신축하여 수용능력을 3,000명 규모로 확장하였다. 1992년 8월에는 문화부 장관으로부터 재단법인 한마음선원으로 설립인가를 받았다. 1994년 10월에는 불교계 주간신문인 ‘현대불교’를 창간하고, 1999년 11월에는 국내 최초

4) 조기룡(2010), 39.

5) 한마음선원은 원래 1971년 ‘대한불교회관’으로 설립되었으나, 이듬해인 1972년 3월 1일 ‘한마음선원’으로 개칭하였다.



의 불교인터넷방송국인 HBTV(한마음불교방송국)를 개설하여 매체포교 분야에서도 활발히 활동하였다. 2000년대 들어서, 2001년 한마음과학원을 개원하고, 2002년 1월 격월간 사보寺報 『한마음저널』을 발간하고, 2009년 6월 한마음선원 불교문화회관을 준공하고, 2016년 대행선禪연구원을 개원하였으며, 2018년 『한마음연구』 창간호를 발간하였다. 이외에도 한마음선원은 수행의 과학적 접근과 신도의 신심 제고에 이바지하고자 여러 연구단체와 신행단체들을 설립하고 프로그램들을 개발하였다.

한마음선원은 창건 이후 2021년 현재 광명선원(1982년 5월 개원), 제주지원(1987.6), 부산지원(1987.12), 광주지원(1988.10), 울산지원(1991.8), 대구지원(1991.8), 중부경남(1992.2), 진주지원(1992.11), 포항지원(1993.11), 청주지원(1993.12), 강릉지원(1994.9), 통영지원(1997.3), 목포지원(1998.11), 문경지원(2000.5), 공주지원(2004.8)⁶⁾ 등 전국에 15개의 지원이 있다.⁷⁾ 그리고 국외지원으로는 뉴욕 지원(1989.12), 워싱턴 지원(1994.11), L.A. 지원(1990.12.), 시카고 지원(1991.3) 등 미국에 4개, 부에노스 아이레스 지원(1991.11)과 꾸쿠만 지원(1991.11) 등 아르헨티나에 2개, 이외 캐나다 토론토 지원(2004.10), 독일 카스트 지원(1996.10), 태국 방콕 지원(1999.4), 브라질 상파울로 지원(2005) 등 국외에 10개의 지원이 있다.⁸⁾

6) 공주지원은 1993년 11월 개원한 대전지원을 2004년 8월 공주시로 이전하면서 개칭한 것이다.

7) <http://www.hanmaum.org/intro/history/history08.jsp> (검색일: 2021.7.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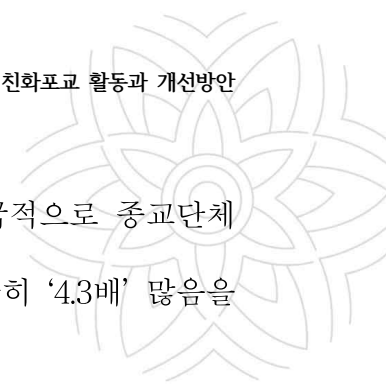
8) 캐나다 밴쿠버 지원은 2004년 10월 개원하였으나 2021년 현재는 폐원되어 존재하지 않는다.

건축불사의 측면에서 볼 때, 한마음선원은 창건 이후 10년간은 완만한 성장을 하였으나 1982년부터 2000년까지 18년 동안 15개의 국내지원과 10개의 국외지원을 개원하는 급성장을 이루었다. 2000년 이후 현재까지는 본원의 지원 없이 전·월세로 개원한 각 지원이 불사금을 마련하여 건물을 매입하는 등의 내실을 다지고 있다.

2. 안양지역 종교환경 분석

‘한강의 기적’, 1950년 한국전쟁 이후 1997년 IMF 구제금융사건 이전까지의 대한민국 경제의 고속성장을 지칭하는 말이다. 제2차 세계대전 패전 후의 경제상황을 극복하고 선진국으로 급부상한 서독의 라인강의 기적에 빗대어 한강의 기적으로 부른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경제성장의 이면에는 산업화와 도시화의 급격한 진행으로 인한 노동문제의 심각화와 임금노동자의 증가 그리고 도시빈민 문제와 판자촌 문제 등이 자리하게 되었다. 이러한 1960-70년대의 시대적 상황 속에서 한국기독교는 노동자를 대상으로 하는 산업선교에 나섰다. 산업선교란 과도노동, 임금인상, 노사분쟁, 부당노동행위, 산재보험, 해고문제 등 노동자들의 현실문제와 도시빈민문제의 개선을 위한 활동에 적극적으로 관여하는 현장 중심의 선교 방식을 의미한다.

안양은 한국의 근대화 과정에서 성장한 대표적인 공단지역으로 산업



선교의 주요 활동지였다. 즉 전통적으로 개신교의 교세가 강한 지역이다. 이는 종교단체와 종사자 수를 분석한 <표 1>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표 1> 종교단체 및 종교계 종사자 현황(2019년 현재)

지역	전체		불교 ⁹⁾		개신교 ¹⁰⁾		가톨릭 ¹¹⁾		민족종교 ¹²⁾		기타종교 ¹³⁾	
	단체 수	종사자 수	단체 수	종사자 수	단체 수	종사자 수	단체 수	종사자 수	단체 수	종사자 수	단체 수	종사자 수
전국	73,727	154,319	13,120	26,510	56,676	114,021	2,062	9,582	842	2,199	1,027	2,007
안양	681	1,844	67	192	592	1,563	13	73	4	9	5	7

자료: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¹⁴⁾

이 표에 의하면 2019년 현재,¹⁵⁾ 전국의 종교단체(73,727개) 대비 불교단체(13,120개)는 17.79%이며, 개신교단체(56,676개)는 76.87%이다. 또 한 전국의 종교계 종사자(154,319명) 대비 불교계 종사자(26,510명)는 17.17%이

9) 조계종, 태고종, 법화종, 원효종, 선교종, 관음종, 법화종 등 불교종단의 사찰, 선원, 암자, 포교소, 불교문화원, 불교단체 등을 말한다.

10) 순복음교, 장로교, 성결교, 침례교, 감리교, 성공회 등 개신교 계통의 교회, 금식기도원, 기도원단체, 선교원, 선교회, 선교센터 등을 말한다.

11) 가톨릭 계통의 가르멜수도원, 프란치스코수도원, 도미니크수도회, 베네딕도수녀회, 성골롬방외방 등의 성당, 선교회, 수도원, 수녀원, 단체 등을 말한다.

12) 천도교, 원불교, 증산도, 성덕도, 선불교仙佛敎, 성도교, 한얼교, 대순진리회, 단군숭배, 수운교, 정심회, 대순진리교, 대중교 등 한국에서 자생한 종교단체를 말한다.

13) 유교, 한국에스지아이, SGI(남묘호렌개교), 천리교, 천부교, 국제도덕협회(일관회), 향교, 이슬람교, 통일교, 회교, 힌두교 등의 종교단체를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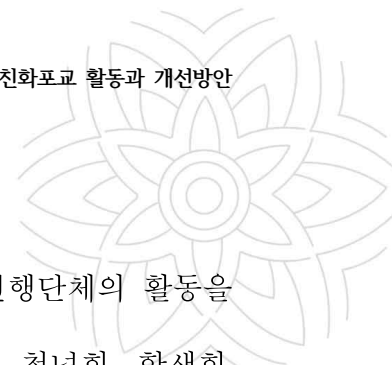
14) 통계청-국가통계포털-온라인간행물-주제별(전체)-전국사업체조사-시군구별산업세분류별현황

15) 2021년 7월 현재, 통계청에서 발표한 종교단체 현황자료는 2019년 자료가 가장 최신자료임을 밝혀둔다.

며, 개신교계 종사자(114,021명)는 73.88%이다. 이는 전국적으로 종교단체 수와 그 종사자 수에 있어서 개신교가 불교에 비해 공히 '4.3배' 많음을 보여준다.

그런데 산업선교의 중심지였던 안양에 있어서는 그 격차가 더 커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안양 전체 종교단체(681개) 대비 불교단체(67개)는 9.83%임에 비하여 개신교단체(592개)는 86.93%로 개신교가 '8.83배' 많다. 이는 전국 기준으로 개신교단체가 불교단체에 비해 4.3배 많은 것과 비교해 볼 때 안양지역이 다른 지역에 비해 불교가 열세인 지역임을 보여주는 수치다.

<표 1>은 종교계 종사자에 있어서도, 안양지역은 전국 기준 대비 불교가 열세임을 확인시켜준다. 안양 전체 종교계 종사자(1,844명) 대비 불교계 종사자(192명)는 10.41%임에 비하여 개신교계 종사자(1,563명)는 84.76%로, 이 역시 개신교가 '8.14배' 많다. 이는 전국 기준으로 개신교계 종사자가 불교계 종사자보다 4.3배 많았던 것과 비교해 볼 때 안양지역이 다른 지역보다도 불교가 약세인 도시임을 확인시켜주고 있다. 하지만 오늘날 한마음선원의 평가 측면에서 볼 때는 오늘날의 성장이 다른 지역에 비해 훨씬 불교가 약세인 안양지역에서 이룩한 것이기에 그 가치를 더욱 높게 평가할 수 있다.



IV. 한마음선원의 포교자원 및 지역친화활동 분석

1. 한마음선원 포교자원 분석

1) 신도의 개성과 자율성 중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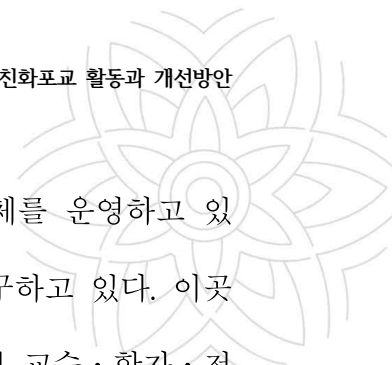
한마음선원의 의사결정기구인 ‘승단운영위원회’로, 그 구성은 주지 스님, 3직 스님 그리고 각 지원장 스님들로 이루어진다. 하지만 이 위원회는 의사 결정기능보다는 신도와 각 지원의 의견을 수렴하는 기능을 보다 많이 수행한다. 한마음선원에서 대부분의 일은 개인에게 철저할 정도로 맡겨지며, 신도는 언제나 자신의 의사를 충분히 제시한다. 사찰운영에 있어서 신도의 개성과 자율성을 철저히 보장하고 있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개성과 자율성을 중시하면 조직의 단결력이 떨어진다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한마음선원에서는 신도의 개성과 자율성에 대한 보장이 오히려 단결된 추진력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단결성과 추진력은 연등축제와 같은 불교행사에서도 확인되어 왔으며, 근래에는 대행스님 입적 후에도 스님과 신도가 혼연일체가 되어 동요와 분란 없이 사찰을 운영하고 있음에서 입증되고 있다. 이는 바로 신도의 개성과 자율성에 대한 보장이 출·재가간의 화합과 신뢰로 승화되면서 생긴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2) 실행단체의 활발한 활동

개성과 자율성을 중시하는 한마음선원의 분위기는 실행단체의 활동을 활발하게 만들었다. 실행단체는 범형제회, 지역신행회, 청년회, 학생회, 어린이회로 구성되어있다. 이들 실행단체는 실행활동을 위주로 하면서 사찰활동에도 참여하고 있다. 실행활동은 자기 수행 중심으로 하며 사찰활동은 각 실행단체의 특성에 맞게 하고 있다. 이 역시 개성과 자율성을 보장하는 분위기가 반영된 것이다.

범형제회는 한마음선원의 주된 실행단체인데 600여명의 거사들로 구성되어있다. 이는 일반적으로 보살들이 실행단체의 주축을 이루고 있는 한국불교의 현실에서 상당히 보기 드문 경우이다. 그 이유는 한마음선원의 실행활동이 이론과 관념 중심의 신도교육이 아니라 실참實參을 중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이론과 관념보다는 실행과 체험을 선호하는 남성들 입장에서 보면 보다 매력적이다. 거사회 회원들은 자기 수행을 중심으로 생활하면서 사찰의 대소사를 담당한다. 또한 각자의 직능과 역량에 맞추어 복지·봉사·섭외·기획·재무·조직·포교·교육·홍보·서클부 등에서 활동을 한다.

학생회와 어린이회도 거사회의 후원 속에서 활발히 활동한다. 학생회는 중등부와 고등부로 구성되어 있으며, 어린이회는 연꽃법당 법회(7세-초등학교 2년)와 지혜법당 법회(초등학교 3년-초등학교6년)로 구성되어 있다. 매주 일요일에는 학생 법회가 열리는데, 이때 200여 학생들이 모여 일



주일 동안에 한 각자의 공부 내용을 점검한다. 또 한 250여명의 어린이들은 일상생활과 관련된 프로그램들을 통해 자연스럽게 불법佛法을 배운다.

지역신행회는 행정구역단위로 구성되어 있으며, 자체적으로 신행활동 및 단위활동을 활발히 전개한다. 서울, 경기, 인천 지역에 200개 이상의 동 단위 신행회가 구성되어 있으며, 각 동 단위 지역장들은 매월 1회 지역장 회의를 열어 지역신행회 발전방향 등 중요사안에 대해 논의한다. 또한 동 단위 신행회가 모여 37개의 구 단위 신행회를 구성하는데, 구별로 정기법회가 한달에 두 번 이상 봉행된다. 이 법회는 수행을 지향하는 한마음선원의 특색을 보여주고 있다. 법문을 중심으로 진행되지 않고 신도의 공부 내용을 점검하는 토론하는 형식으로 진행된다.

그리고 신도회는 이들 신행단체들을 총체적으로 관리하면서 각종 행사를 기획하고 실행한다. 한마음선원의 행사에는 연례행사인 봉축행사나 수계법회, 봄·가을 바자회 이외에 세미나를 비롯한 비정기적 행사도 다수 있다. 이러한 각종 행사들은 사찰에 거의 상주하면서 소임을 다하는 신도회 임원들의 봉사정신이 있기에 가능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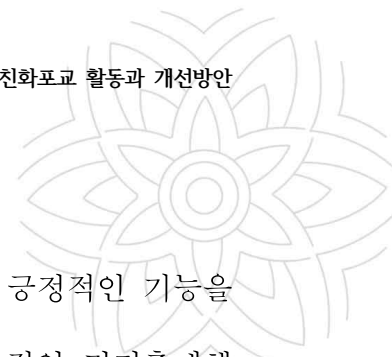
3) 산하단체의 활성화

한마음선원은 수행기능 이외에 산하단체의 활성화를 통해 인재육성과 포교불사에도 노력하고 있다. 한마음선원은 한마음 과학원, 한마음 국제

문화원, 한마음 출판부, 한마음 미디어실 등의 산하단체를 운영하고 있다. 한마음과학원은 물질과학과 정신과학의 조화를 연구하고 있다. 이곳에서는 현재 인문·사회·자연과학·공학·의학 분야의 교수·학자·전문인들 90여명이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한마음 국제문화원은 국내외 수행자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대행스님의 법문 자료와 교육 프로그램, 교재개발을 하고 있다. 또한 한마음선원은 한마음 미디어실, 한마음 출판부, 한마음방송국 등의 산하단체를 통해 현대인에게 맞는 매체 포교를 전개하고 있다. 한마음 미디어실은 불교자료 디자인 연구 및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시대흐름에 맞는 포교 활동을 하고 있고, 한마음 출판부는 『한마음 요전』과 사보寺報인 『한마음』 등을 통해 문서 포교를 하고 있다. 또한 한마음방송국은 오디오와 비디오를 통해 법문은 물론 기초교리부터 불교문화에 이르는 다양한 내용을 생동감 있게 전달하고 있다.

2. 한마음선원 지역 친화 활동 분석

한마음선원의 지역 친화 활동은 하드웨어적이 아닌 소프트웨어적인 특징이 있다. 시설의 설립이 아닌 프로그램의 운영과 봉사의 실천을 중심으로 지역 친화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1) 문화강좌

문화강좌는 현대인들의 지적 욕구와 여가 생활을 충족시켜줄 수 있는 영역으로 한국사회에서 종교의 구분 없이 개설되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맞추어 한마음선원은 불교문화회관에서 다양한 문화강좌들을 개설하여 지역주민들의 정서적 욕구를 충족시켜주고 있다. 한마음선원의 문화강좌는 대부분 불교적 색채를 지니고 있지 않고 시민들의 다양한 욕구를 반영하고 있었다. 불교적 내용을 내포한 것은 사찰요리, 선법가, 불화와 민화, 참모습 살피기 정도였으며, 그 외에는 시와 수필, 다도, 태극권, 한글교실, 스케치와 회화, 생활요가, 손뜨개, 풍물, 플루우트, 도예, 단소, 한지공예, 매듭과 규방공예, 꽃꽂이, 영어회화, 방과후 교실(수학, 발레, 바이올린, 미술, 한자급수) 등 생활과 학습 영역의 강좌들이었다. 또 한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20시 30분까지 하루 종일 강좌별로 시간이 배정되어 있어서 지역주민들의 접근이 매우 용이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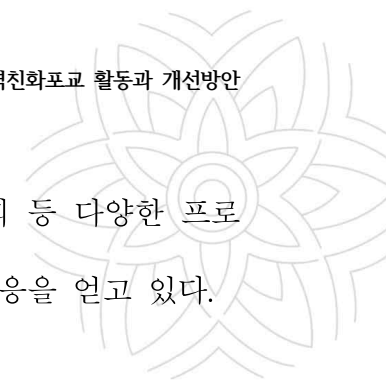
하지만 2021년 현재는 코로나19(COVID-19)로 인하여 강좌 수를 대폭 줄여 불교&민화, 기초 취미 미술,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이것’ 관리하기 등 3개만을 비대면으로 운영하고 있다. 불교&민화와 기초 취미 미술 등은 유료의 성인문화강좌이고,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이것’ 관리하기는 무료의 인문학특강이다.¹⁶⁾

16) <http://www.hanmaum.org/intro/ceremony/ceremony20.jsp> (검색일: 2021.7.17)

2) 안양지역 초파일 장엄등 점등식

지역축제는 주민들의 어울림마당으로써 지역 친화에 긍정적인 기능을 담보하고 있다. ‘연등회 연등축제’는 한국불교의 범종단적인 거리축제행사이다. 이러한 축제에서 한마음선원은 매년 형형색색의 찬란한 장엄등과 한복으로 곱게 차려입은 신도들의 손에 들린 아름다운 개인등을 선보이며 20년 이상 축제를 주도하고 있다. 그런데 연등회 연등축제 이전에 한마음선원의 연등들은 안양지역의 축제인 안양사암연합회 주관의 초파일 장엄등 점등식에서 먼저 빛을 발하고 있다. 이 점등식은 한마음선원의 본원 및 각 지원의 신도와 지역주민, 그리고 안양시의 시장과 기관장들뿐만 아니라 안양지역 성당의 신부들도 참석하는 친교의 장이 되고 있다. 이 점등식은 한마음선원 혼성합창단과 어린이회, 학생회, 청년 연희단, 청년 풍물패 등이 각종 공연으로써 안양시민들과 하나 되는 지역축제의 장이기도 하다.

연등회 연등축제에 대한 한마음선원의 애정과 열정은 남다른 면이 있는데, 이는 “등을 만드는 사람이나 등을 켜는 사람이나 등을 드는 사람이나 등을 보는 사람이나, 다 그 마음이 밝아질 것이다”라는 대행스님의 생전 말씀에 따른 것이다. 대행스님은 생전에 자신이 각각의 장엄등 제작 전에 이름을 직접 정하고 그 뜻을 대중들에게 알려주면 그 의미를 살려 대중들이 직접 만들도록 하였으며, 신도들이 입는 의상도 한마음선원에서 디자인하고 개인들의 치수를 재어서 자체 제작하도록 하였다.



3) 군포교

한마음선원의 군포교는 1972년 개원 당시 선원을 방문하는 인근 군부대 장병들을 대행스님이 지도하면서부터 시작되었다. 군부대는 젊은 청년들에게 부처님 가르침을 전할 수 있는 중요한 포교의 현장임에도 불구하고 시설 규모나 성직자 수, 종단 지원 면에서 타종교에 비해 엄청나게 열악한 상태임을 안타깝게 여겨 직간접적인 지원에 나선 것이다.¹⁷⁾

현재 한마음선원은 여러 곳의 군법당과 결연을 통해 지속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한마음선원에서 지원하는 군법당은 일곱 군데다. 제3623부대 50탄약대대, 1사단 신병교육대 정각원, 제3군수지원사령부 호국 삼마사, 제1113야전공병단 박달사, 연천 1723부대 범음사 포교당, 제25사단 70연대 호국 적성사, 1공수여단 5602부대 일취사 등이다.¹⁸⁾ 특히 25사단 호국 적성사는 한마음선원 안양 본원에서 지원을 해 설립된 군법당으로 지금까지 한마음선원의 지역 실행회에서 꾸준히 법당 위문을 하고 있다. 한마음선원의 지원 내용은 군법당의 상황에 따라 병사들의 마음공부를 위한 스님들의 법문, 생활 속에서의 공부를 위한 선법가 교육, 간식 제공, 각 실행회와의 교류 등이다. 군포교는 여러 스님이 부대별로 소임을 맡고 있으며, 소임스님이 없는 경우는 실행회의 신도들만으로 군부대를 방문하고 있다. 한마음선원은 단순히 군법당과 결연을

17) 대한불교조계종 한마음선원(2012), 19.

18) <http://www.hanmaum.org/intro/ceremony/ceremony04.jsp> (검색일: 2021.7.20)

통한 후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위문 공연과 영어 법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활동을 펼치고 있어 군불자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4) 교도소 법회

한마음선원은 대행스님이 청송감호소에 에어컨을 기증한 것이 인연이 되어 현재는 영등포교도소 법회를 지속적으로 봉행하고 있다. 영등포교도소 이전에는 안양교도소에 대한 포교를 하였으며, 한마음선원 인근에 자리하고 있는 안양청소년 보호감호소의 보호학생들에게는 특별한 관심으로 대행스님이 직접 수계를 해주었다. 그리고 이들 교도소 법회 및 행사에 있어서는 한마음선원의 합창단이 음성공양으로 지원을 하고 있다.

한마음선원의 사가(寺歌)인 한마음선원가는 청년회의 교도소 법회에서 비롯되었다. 청년회에서 매월 교도소를 방문한 인연으로 감복한 재소자가 시를 보냈는데, 대행스님이 시를 보고 “이것을 한마음선원가로 하라”고 한 것이다.¹⁹⁾ 한마음선원의 교도소 법회는 사회로부터 격리되고 소외된 이웃에 대한 친화 활동과 다르지 않다.

5) 병원자원봉사활동

한마음선원의 신도회는 여타의 자원봉사와는 별도로 안양 및 군포 등

19) 대한불교조계종 한마음선원(2012), 21.



인근지역의 요양병원 등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병원자원봉사 활동은 신도회의 별도 자원봉사팀이 9-12명씩 조를 편성하여 1주일에 2-3회 정도 펼치고 있다. 병원자원봉사팀이 별도로 구성된 것은 6년 정도 되었으나, 그 이전에도 신도회 내 자원봉사 활동들이 자생적으로 전개되다가 병원과 연계되어 결성되었다. 기독교에 비하여 호스피스 활동 등 병원 포교가 부진한 한국불교의 상황에서 필요한 지역친화 포교라 할 수 있다.

6) 장학사업

한마음선원은 재단법인 한마음선원과 대행장학재단을 설립하여 신도의 자녀들뿐만 아니라 안양 소재 외부 교육기관에 대한 장학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신도의 자녀들에 대한 장학금은 본원 및 지원의 추천을 받은 고등학생, 대학생, 대학원생들에게 지급되며, 안양 소재 외부 교육기관에 대한 장학금은 경인교육대학교와 삼성초등학교에 추천을 의뢰 후 기준에 따라 학생을 선발하여 지급하고 있다. 삼성초등학교의 경우에는 장학금 이외 비품과 행사도 지원해주고 있다. 특히 대행장학재단에서는 인재장학생을 선발하여 등록금 전액을 증여하고 있다.

V. 한마음선원의 지역 친화 포교 방안

본 장에서는 한마음선원의 지역 친화 포교 방안을 생활[문화·복지]과 신행[교육·수행]의 지역공동체운동 관점에서 제시하고자 한다. 지역공동체운동은 어떤 지역을 기반으로,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을 하나의 공동체로 긴밀하게 통합되게 하며, 주민들을 생활 정치의 주역이 되도록 전개하는 운동을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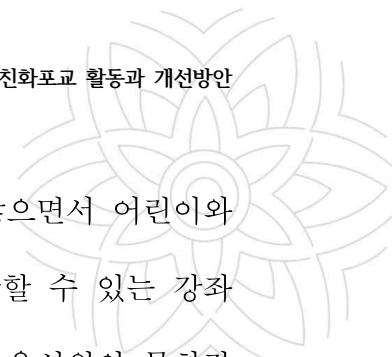
1. 생활[문화·복지] 지역공동체운동

‘생활 지역공동체운동’이란 사찰이라는 공간 그 자체를 불자뿐만 아니라 일반시민들이 접근할 수 있도록 생활, 즉 문화와 복지 공간으로 제 공함으로써 지역과 공동체를 이루는 것을 의미한다. 본장에서 필자는 한마음선원의 생활문화 지역공동체운동으로 문화센터, 문화행사, 그리고 사회복지 활동을 제시하고자 한다. 한마음선원 자체를 지역의 문화와 복지의 공간으로 활용한다면 지역친화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²⁰⁾

1) 문화포교: 지역 문화공동체운동

지역사찰의 문화포교는 대외적으로 지역사회에서 사찰에 대한 이미지

²⁰⁾ 한국종교문화연구소(2003), 25-26.



를 높이는 한편 대내적으로는 점점 커가는 신도들의 문화적 요구를 충족시켜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도 도움을 줄 수 있다. 지역사찰이 할 수 있는 문화포교는 지역사회의 필요나 지역사회차의 형편에 따라 다양한 형태가 있을 수 있다. 본고에서는 한마음선원의 기존 문화센터와 문화행사를 활용한 문화포교 방안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문화센터(문화교실)는 사찰을 간절한 입시기도나 엄숙한 수행공간 혹은 딱딱한 교리강좌를 듣는 곳에서 벗어나 문화강좌를 통해 새롭게 태어나게 해주고 있다. 오카리나, 라인댄스, 사진교실, 그림교실 등 음악과 미술을 중심으로 다양한 문화강좌로 지역주민들을 불러 모으면서 사찰이 취미생활을 즐기는 여가의 장소로 탈바꿈하고 있다. 다양한 문화강좌를 통해 일상적인 교양을 습득하고 문화적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사찰문화센터는 지역의 문화적 필요를 채우는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²¹⁾ 이와 같이 사찰을 문화공간으로써 지역주민들과 공유하는 것은 사찰의 지역 친화 측면에서 볼 때 그 자체로 매우 의미 있는 일이다. 이같이 사찰의 문화센터 및 문화강좌 운영은 사찰을 찾는 많은 이들에게 새로운 전기를 마련해 줄 수 있다. 기존 신도에게는 신형 생활과 문화를 견비할 수 있는 편의를 제공하고, 문화강좌를 원하는 일반 시민에게는 사찰과 친해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줄 수 있는 것이다.²²⁾

IV장 2절에서 살펴보았듯이 한마음선원의 문화강좌는 다양하고도 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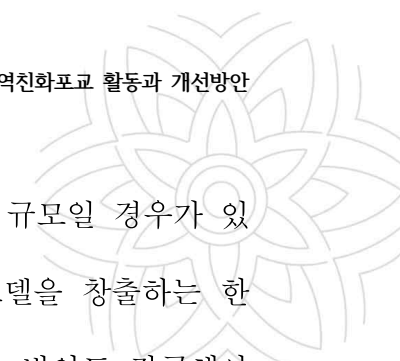
21) 성석환(2009), 351.

22) 불교신문, 2012.6. 30.

발하게 이루어져왔다. 특히 불교적 색채를 강조하지 않으면서 어린이와 중고생 그리고 성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세대가 수강할 수 있는 강좌들로 구성되어 있었다는 점에서 돋보인다. 그러나 한마음선원의 문화강좌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첫째, 백화점이나 지방자치단체, 대학 외에도 교회마다 만드는데 문화센터로 인해 경쟁이 심화 되고 있다. 또한, 이로 인하여 수준 높은 강사나 질 좋은 강의가 없이는 경쟁력을 갖기 어려운 실정이다. 둘째, 다양한 욕구에 따라 강좌 수가 늘어나게 되면 늘어난 만큼의 공간과 강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재정적 압박요인이 된다. 셋째, 지역사회와의 접촉과 소통을 목적으로 시작된 문화센터가 자칫 지역사회와 갈등이 원인이 될 수 있다. 이는 문화센터에서 개설하는 강좌들 가운데 상당수가 지역 내 상점이나 학원들과 중복되기 때문이다. 아직 사찰의 문화센터가 활성화되어 있지 않은 까닭에 교회의 문화센터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사례로 들면, 어린이들을 위한 강좌들은 지역 내 학원과 경쟁 관계에 있으며, 성인들을 위한 강좌들은 지역 내 이·미용소, 꽃가게, 빵집 등과 갈등 관계에 있다.²³⁾

다음으로는 문화행사를 살펴보고자 한다. 사찰의 문화행사로는 산사음악회를 우선 떠올릴 수 있지만, 한마음선원은 ‘안양지역 초파일 장엄 등 점등식’과 ‘한마음 음악제’를 매년 시행하고 있다. 한마음 음악제는

23) 조용훈(2013), 152-154.



세종문화회관 대강당에서 봉행되는 문화행사다. 문화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사회 환경에 비추어 볼 때, 한마음선원이 사회의 변화에 바람직스럽게 조용하는 현상이라고 말할 수 있다.²⁴⁾ 하지만 ‘안양지역 초파일 장엄등 점등식’과 ‘한마음 음악제’는 한마음선원이 주관하는 지역 문화행사라고 지칭하기에는 부족한 면이 있다. 전자는 한마음선원의 단독행사가 아니라는 점에서 후자는 안양지역에 국한되는 행사가 아니라는 점에서 그러하다.

한마음선원이 문화행사를 통하여 지역과 보다 친화하기 위해서는 지역축제의 개발과 동참에 적극적이어야 한다. 지역축제의 개발은 사찰이 불교적 소재를 활용하여 행사를 직접 주최하는 것이며, 지역축제의 동참은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는 행사에 불교적 콘텐츠를 가지고 참여하는 것이다. 전자의 예로는 해인사의 ‘팔만대장경축제’와 대흥사의 ‘초의차 문화제’, 전등사의 ‘삼랑성 역사문화 축제’, 그리고 여러 사찰에서 하고 있는 ‘연꽃 축제’ 등을 들 수 있으며, 후자의 예로는 하동 ‘야생차 축제’와 진주 ‘남강 유등제’, 화순 ‘운주문화축제’ 등을 들 수 있다.²⁵⁾

한마음선원이 문화포교를 진행하다 보면 여러 가지 해결해야 할 실제적 문제들을 만날 수밖에 없다. 사찰 내적으로 포교의 주체나 조직, 예산, 공간 문제를 둘러싼 갈등을 해결해야 한다. 무엇보다, 재정자립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 문화포교는 시설투자 외에도 운영비와 인건비가

발생한다. 한마음선원의 예산만으로 운영하기엔 벽찬 규모일 경우가 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한마음선원 스스로 수익모델을 창출하는 한편 문화행사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는 방안도 강구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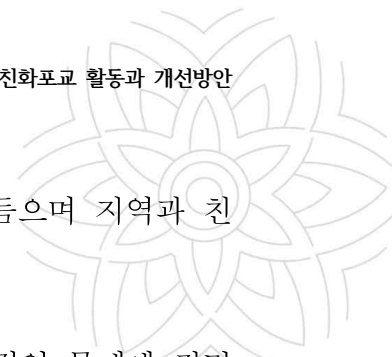
한마음선원의 문화포교가 성장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재정적 문제와 더불어 전문가 양성도 고민해야 한다. 오늘날처럼 백화점, 지자체의 주민센터, 대학의 평생교육원에서 경쟁적으로 문화교실이나 문화강좌를 개설하는 상황에서 지역사찰 문화센터가 경쟁력을 가지려면 전문성 확보는 필수적이다. 또한 지방 자치시대 이후 지역축제가 우후죽순처럼 열리고 있는 상황에서 불교적 특성을 살리면서도 지역민의 호응을 불러 일으키기 위해서도 전문성이 확보되어야만 한다. 다만 불교적 특성은 그 동안 한마음선원이 해왔듯이 불교가 아닌 듯 불교인 불교문화콘텐츠여야 한다. 불교색이 강하게 드러나는 문화콘텐츠는 비불자들에게는 강한 거부감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지역친화 포교에 오히려 저해될 수 있기 때문이다. 양질의 수준 높은 불교문화콘텐츠를 개발하려면, 종단의 불교문화사업단, 포교연구실이나 종립대학의 관련 학과나 연구소 같은 전문가 집단 차원과의 연계와 협력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2) 복지포교: 지역 복지공동체운동

‘복지포교란 불제자들이나 불교계의 다양한 사회조직[개별사찰, 불교단체,

24) 김유신(2004), 394-395.

25) 조기룡(2010), 57.



종단 등이 주체가 되어 사회복지 활동을 수행함으로써, 일차적으로는 복지 수혜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하고, 나아가 그것이 궁극적으로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펴는 포교로 귀결되는 활동이다'라고 조작적으로 정의할 수 있다.²⁶⁾ 그러므로 지역사찰의 복지포교란 사찰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요체로 하여 지역공동체의 삶을 개선하는 일체의 활동인 것이다.

복지포교는 한마음선원의 활동을 고려할 때 아쉬움이 큰 대목이다. 한마음선원의 사세(寺勢)가 크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시설이 부재할 뿐만 아니라 사회복지프로그램도 간접적 활동에 머무르고 있기 때문이다. 사회복지 유형은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영유아복지, 아동복지, 청소년복지, 다문화복지, 식품기부, 지역자활 등으로 구분되는데, 한마음선원의 사회복지프로그램은 병원자원봉사활동과 장학금 전달 등에 한정되어 있는 실정이다.

그러므로 한마음선원은 사회복지와 관련해서는 입장을 전향적으로 바꾸어 안양지역이 필요로 하는 사회복지적 욕구를 조사하여 부응하고, 지역주민이 한마음선원을 편안하고 좋은 만남의 장으로 여기도록 만들어야 한다. 만일 한마음선원의 정책이 사회복지시설의 설립에 있지 않다면, 기존 프로그램을 확대하여 지역사회의 현안문제가 되고 있는 다문화가정, 외국인 노동자, 장애인, 가출청소년, 노숙인, 가정폭력 피해

자, 저소득 가정 등 지역의 소외된 이웃과 약자를 보듬으며 지역과 친화해나가야 한다.

한마음선원이 사회복지 프로그램을 확대한다면 재정적인 문제에 직면할 수 있는데, 이의 해결을 위해서는 다양한 후원 재원을 찾아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노숙자 및 실직자에 관한 것은 보건복지부나 고용노동부에, 청소년에 관한 것은 문화체육관광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실업극복 국민운동본부나 사랑의 열매(사회복지 공동모금회) 등에 사업제안을 하거나 행정자치부의 건전단체 지원프로그램 등을 이용할 수도 있다. 또한 시청이나 구청의 사회복지과 등 다양한 상존 프로그램을 잘 검토해보면, 실제로 배정된 예산을 사용할 적합한 단체를 찾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 형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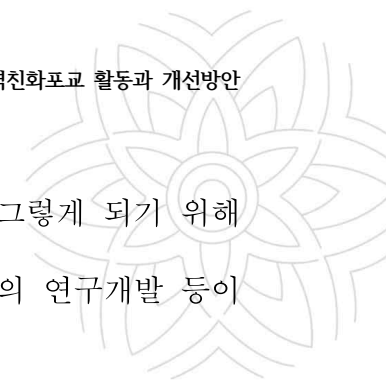
2. 실행(교육·수행) 운동

1) 교육포교

교육포교는 신도교육을 통해 각 사찰 신도들이 실행생활에 필요한福德과 지혜를 갖추도록 하며, 나아가 신도들의 포교역량을 강화해서 포교효과를 증진 시키는 포교방법이다. 따라서 교육포교가 이루어지려면 포교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교육이 먼저 실시되어야 한다.²⁷⁾ 그리고 신도

26)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원(2010), 271.

27)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원(2010), 239.



교육이 지역친화 포교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신도교육의 내용에 포교와 관련된 내용이 상당수 포함되어야 할뿐만 아니라 교육내용 전반을 지역 친화 포교 차원에서 재해석하고 응용할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하다.

한국불교에서 교육포교는 불교대학으로 대변된다. 그런데 한마음선원은 불교대학을 운영하지 않고 있다. 여타 사찰의 불교대학들이 부처님의 생애, 불교사, 경전들을 교육 하는데 비하여 한마음선원의 교육은 대행선사의 생애와 수행이 담긴 『한마음요전』, 『신행요전』, 『허공을 걷는 길』을 교재로 불교대학이 아닌 법회와 신행회의 단위로 이루어진다.

한마음선원이든 여타의 사찰이든 신도교육이 지역 친화 포교로 회향하기 위해서는 공히 교육받은 불자들을 조직화해야만 한다. 조직화된 신도들이 개별 역량을 결집해서 지역사회에서 활동할 때 포교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것이다. 불교대학은 신도들의 조직화에 장점이 있다. 불교대학을 수료하기 위해서는 신도들은 1주일에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수업에 참여하여야 하는데, 이는 신도들의 사찰방문을 정기적으로 만들어주고, 이는 다시금 신도들의 사찰에 대한 소속감과 주인의식을 강화시켜주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불교대학의 장점을 한마음선원의 입장에서는 고민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신도교육이 교리와 신행 이외에 사회교육과 연계 될 수 있을 때 지역친화 효과가 더욱 커질 수 있음도 생각해볼아야 한다. 고령화 사회의 도래로 평생교육에 대한 국가적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따라서 한마음선원의 신도교육도 지역주민들과의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 보다 지역 친화적일 수 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교육내용의 개편, 유능한 강사진 확보, 교육방법의 연구개발 등이 선행되어야 한다.²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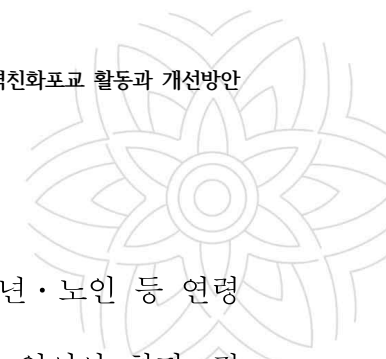
2) 수행포교

한국불교는 전통적인 4대 수행법이라 해서 선禪·염불念佛·간경看經·주력呪力을 중요시해왔다. 그 밖에 절·위빠사나·지관법止觀法·티벳불교 수행법도 있으며, 이러한 수행법에 바탕을 둔 응용수행법도 등장하고 있다. 서양에서는 이러한 여러 가지 수행법들을 현대인의 특성에 맞추어 적절히 혼합해서 새로운 수행법을 개발하고 있으며, 많은 호응을 얻고 있다.²⁹⁾

수행포교는 한마음선원의 강점이다. 그런데 여타 사찰은 상기한 방법들을 중심으로 수행하는데 비하여 한마음선원의 수행은 대행선사가 체득한 주인공主人空을 요체로 한다. 선사는 주인공이 불가佛家の ‘참나’, ‘불성佛性’, ‘진여眞如’, ‘본래면목本來面目’과 다르지 않은 말이라고 한다. 그에 의하면, 주인공은 무슨 대상이 아닌, 일체가 둘이 아니듯 주인공과 부처는 둘이 아니라고 한다. 그렇기에 ‘주인공’이라 부르든 ‘참나’라 부르든 괜찮으며, 밖으로 돌아서 찾으려 하지 말고 안으로 찾는 것이 올바른 관觀의 시작이라고 한다.³⁰⁾ 이러한 대행선사의 관법觀法을 근래에

28)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원(2010), 240.

29)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원(2010), 318.



는 대행선사의 제자들을 중심으로 ‘대행선’으로 지칭한다.

한마음선원은 생활참선 수행도량을 지향한다. 생활참선은 시대의 조류에 부응하는 포교방안이다. 오늘날은 힐링(healing)과 웰빙(well-being)으로 대변되는 건강한 삶에 대한 욕구가 자리하고 있는 시대인데, 오히려 현재는 코로나19(COVID-19)로 인한 팬데믹(pandemic)의 장기화로 인하여 생명을 위협받는 시기를 살고 있기 때문이다.

종교는 우울과 불안의 시기에 위로와 안정을 줄 수 있어야 한다. 이는 현 시기에 한마음선원이 생활참선을 통한 포교의 방향이기도 하다. 안양시민들이 코로나19로 인한 우울과 불안을 극복하여 힐링과 웰빙을 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것이 현재 한마음선원의 지역 친화 포교인 것이다.

불교에는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다양한 수행법이 있지만, 한마음선원의 관점에서는 대행선을 어떻게 체계적인 프로그램으로 만들고, 확산시킬 것인가에 따라 수행이 지역 친화 포교에 기여하는 정도가 달라진다.

대행선을 프로그램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기간별, 계층별·단계별로 나누어 수행을 해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어야 한다. 그렇게 해서 기간별로는 수행에 관심 있는 신도들이나 지역주민들을 모집해 몇 개월 동안 1주에 한 번씩 운영하거나 집중적으로 1박 2일부터 5박 6일 또는 그

이상까지 연속해서 운영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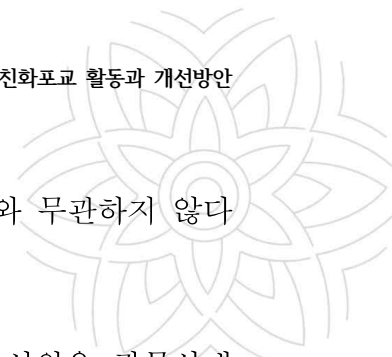
계층별·단계별로는 어린이부터 청소년·청년·중장년·노인 등 연령별로 근기에 맞게 대행선 프로그램을 짜서 운영할 수 있어야 한다. 직장인·경영인·학생·주부 등에 맞게 프로그램을 짜서 운영할 수도 있어야 한다. 각각 계층별로 사람들이 놓인 상황에 맞추어 대행선을 프로그램화하는 것이다. 유아나 어린이는 놀이와 체험학습으로, 청소년들에게는 영상자료와 여러 가지 활동을 통해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느끼게 해서 수행으로 심신을 성숙시켜 나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다.

근래 우리나라에서 인성 프로그램, 심성 프로그램, 영성 프로그램 등이 점차 확산일로에 있는데, 그것들은 대부분 불교 수행법에서 차용된 것이다. 이처럼 불교의 수행법은 건강에 대한 관심이 많은 현대인들의 관심을 끌기에 충분한 여지가 많다. 이는 한마음선원의 생활참선수행이 건강을 모티브(motive)로 지역사회에 친화할 수 있는 여지가 많음을 시사하고 있는 것이다.

VI. 결론

지역사회와 지역주민은 사찰성장의 토대이다. 사찰이 지역과 친화하지 않고서는 성장은 물론 존속도 어렵다. 사찰이 지역과 친화한다는 것은 사찰이 지역과 공동체가 된다는 것이다. 공동체의 구성원들은 소속

30) <http://www.hanmaum.org/daehaeng/meeting/meeting04.jsp> (검색일: 2021.7.30)



감과 일체감 그리고 자발성을 지닌다. 사찰 역시 지역공동체의 구성원이 되기 위해서는 해당 지역에 대한 소속감과 일체감을 가지고 지역의 문제에 자발적으로 임하여야 한다.

사찰은 역사적·전통적으로 지역사회·지역주민들과 함께 동고동락하여왔다. 역사적으로 사찰은 외세침입 시에는 승군(僧軍)이 되었으며 기근에는 구휼자(救恤者)가 되었다. 또한 국보와 보물의 절반 이상이 불교문화 재임을 생각할 때 사찰은 전통적으로 한국문화형성의 주도적 역할을 담당해왔다. 이러한 사찰의 활동들은 지역사회에 대한 소속감, 일체감, 자발성이 없이는 불가능했던 것들이다. 즉 사찰은 역사적·전통적으로 지역과의 친화활동에 앞장서왔으며 또한 지역과 공동체를 이루어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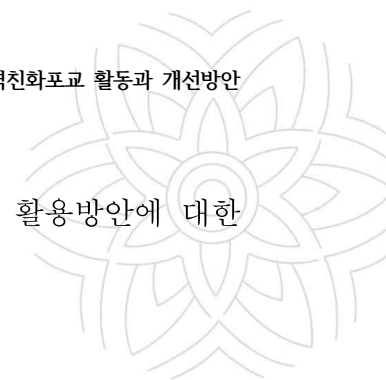
하지만 현대사회에 들어서서는 사찰과 지역의 유리(遊離) 현상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이에 반하여 개신교와 가톨릭은 체계적·지속적인 지역 친화 사업들을 전개하고 있다. 개신교는 이미 1984년 한국기독교협의회가 발표한 「사회선교지침」에서 지역사회 특성에 맞추어 목회의 모형을 모색하고 지교회 전략을 수립하여왔다. 또한 가톨릭은 1990년대 후반 이후부터 현재까지 각 교구별 시노드 회의를 개최하는 등 지역사회를 분석하고 종합적인 접근전략을 수립하는데 적극 나서고 있다.

반면 불교는 개별사찰 수준의 지역친화사례가 생겨나고는 있으나, 대부분 사찰의 역량이 취약하며 종단 차원의 전략 수립과 지원도 부족한 실정이다. 이는 개신교와 가톨릭에 비하여 불교가 지역친화에 있어서

열악한 상황임을 의미하며 현재 불교포교의 침체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한국불교의 이런 열악한 포교 상황 속에서도 한마음선원은 괄목상대할만한 성장을 이루어왔다. 이제 한마음선원은 성장을 어떻게 지역사회와 지역주민에게 회향할 수 있을지를 고민할 때가 되었다고 본다. 그것이 곧 한마음선원의 지속성장이다. 한마음선원은 현대인들의 관심사인 문화와 복지에 맞춘 포교를 통하여 지역과 친화할 수 있어야 한다. 즉 문화와 복지포교를 통하여 안양지역과 생활문화 공동체를 이루어야 하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한마음선원은 불교단체로서의 고유성과 정체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교육과 수행에 의한 포교를 잊지 않아야 한다.

다시 한번 강조하건데 포교에 의한 교단과 사찰의 성장은 지역에 회향되어야만 한다. 한마음선원이 사찰의 성장만을 추구한다면 지역과 공동체를 이루기 힘들다. 사찰은 지역사회와 지역주민을 성장의 토대로 하고 있기에 그 성장을 지역과 공유할 수 있어야 한다. 한마음선원이 성장의 결실을 안양지역과 공유하면 안양주민의 한마음선원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게 되어 포교에 유익하게 되고 한마음선원은 다시금 성장할 수 있게 되는 선순환 구조를 이룰 수 있다.



[참고문헌]

김유신(2004), 「불교문화기획의 이해」, 『불기2548년 전국본·말사주지 연수 자료집』, 대한불교조계종 교육원.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원(2010), 『포교 이해론』, 서울: 조계종출판사.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원(2012), 「사찰중심 지역포교활성화 지표개발 연구보고서 -사찰의 지역통합성을 중심으로-」,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원.

대한불교조계종 한마음선원(2012), 『만공에 핀 꽃은 청산을 울리고 / 대행 선사 추모집』, 『한마음저널』 제64호 특별판.

성석환(2009), 「지역공동체 형성을 위한 도시교회의 문화선교」, 『한국기독교신학논총』 68, 한국기독교학회.

조기룡(2010), 「사찰의 지역사회 참여 프로그램의 실태와 개발 방안」, 『선문화연구』 9, 한국불교선리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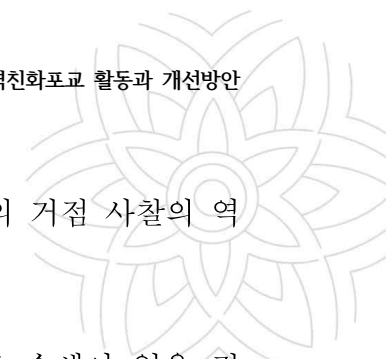
조기룡(2020), 『사찰경영, 부처님 법대로 하면 잘된다』, 파주: 올리브그린.

조용훈(2013), 「지역교회 문화사역 현실과 미래적 과제에 대한 연구」, 『장신논단』 45(2), 장로회신학대학교 기독교사상과 문화연구원.

참여불교재가연대·사)불교아카데미(2004), 「사찰 지역화 전략 모델 개발 결과보고서」.

한국종교문화연구소(2003), 「종교문화공간의 사회적 활용방안에 대한 조사보고서」, 한국종교문화연구소.

<http://www.hanmaum.org/intro/history/history08.jsp>
<http://www.hanmaum.org/intro/ceremony/ceremony20.jsp>
<http://www.hanmaum.org/intro/ceremony/ceremony04.jsp>
<http://www.hanmaum.org/daehaeng/meeting/meeting04.jsp>



- 논평 1 -

「한마음 선원의 지역 친화 포교 활동과 개선방안」 논평문

김응철(중앙승가대학교 교수)

현재 한국 사회에서 불교는 다수종교의 지위를 잃어가고 있으며, 소수 종교로 전락할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이러한 위기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최선의 대안은 전국의 많은 사찰이 지역 친화적 포교 활동을 전개하는 것임은 두말할 필요도 없는 일이다. 조기룡 교수의 발제문은 한국 불교의 위기를 타개할 수 있는 좋은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있으며, 특히 한마음 선원의 역할과 포교 활동에 대해 상세하게 기술함으로써 실천적 함의(含意)를 내포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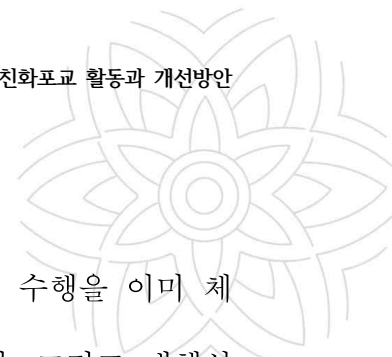
한마음선원의 포교 성과는 대행선사의 가르침과 이를 실천하고자 노력하는 많은 스님, 그리고 재가불자 등 사부대중이 함께 성취한 공덕의 산물이다. 한마음선원은 안양지역뿐만 아니라 전국 및 세계 각국에 많은 지원을 두고, 국내 포교와 더불어 국제포교 분야에서도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다만 발제자는 안양지역과 한마음선원 본원의

포교 활동에 대해 집중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지역포교의 거점 사찰의 역할과 방법에 대해 제시하고 있다.

한마음선원의 포교역량은 하나의 종단이라고 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활성화되어 있으며, 일반 사찰이나 군소 종단에서는 실천하기 어려운 조직과 활동 양태를 보여주고 있다. 또한, 발제자가 강조하고 있듯이 한마음선원은 문화강좌, 지역 점등축제, 군포교, 교도소 법회, 병원 자원봉사, 장학사업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발제자가 한마음선원의 지역 친화적 포교방안을 주장하는 것은 조금 더 지역주민들에게 다가설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는 것으로 이해된다. 발제자의 의견에 전반적으로 동의하면서 지역포교 발전 방안을 실제화하기 위한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한다.

첫째, 한마음선원 본원의 포교역량과 각 지역에서 운영되고 있는 지원의 포교역량이 어느 정도 균형을 이루고 있는지의 문제이다. 안양을 중심으로 하는 한마음선원 본원의 포교 활동을 각 지원의 활동으로 확대하고, 이를 일반 사찰의 지역포교방법으로 보편화시킬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본다. 그리고 사격을 갖추지 못했거나 농어촌 및 산중 사찰들은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지, 이에 대해서는 더 상세한 논의가 요구된다고 보는데 발제자의 의견은 어떤지 알고 싶다.

둘째, 발제자는 한마음선원의 지역 친화 포교방안으로 문화와 복지



를 바탕으로 하는 복지공동체 운동, 문화공동체 운동을 제시하였다. 다만 복지공동체의 경우 지역복지관, 어린이집, 장애인 및 노유자老幼者 시설 등 대부분 시설이 국공립으로 설립되고 사찰에는 이를 위탁 운영하는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 그렇지만 수탁과정에서 종교 간의 경쟁도 치열하고, 수탁금 부담도 큰 반면에 포교 효과는 기대한 만큼 나타나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기존의 위탁시설 위주의 복지서비스로는 불교계가 지향하는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한계가 나타나고 있는데 이를 극복할 수 있는 혁신적인 방안이 있는지 궁금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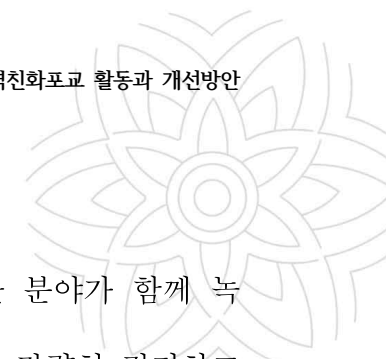
셋째, 문화공동체의 경우 안양과 같은 수도권 위성 도심 지역에서는 다양한 이주자들이 거주하고 인구이동이 심화함으로써 지역공동체가 사실상 붕괴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역축제를 한다고 공동체 의식이 고양된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마을 가꾸기 운동, 주민 자치활동 확대 등 여러 가지 정책을 펴고 있으나 크게 실효를 거두지는 못하고 있다. 지역의 문화공동체 형성을 촉진 시킬 수 있는 실제적 대안을 제시해 주기를 바란다.

넷째, 발제자가 제시한 교육 포교 방법에서 신도교육을 넘어서서 평생교육, 사회교육으로 확대하기 위해서는 교육내용 및 강사진 확보와 더불어 평생교육기관 설립과 불교를 넘어설 수 있는 인문교육 등으로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본다. 한마음선원에서 국가의 제도적 인증을 받아 운영할 수 있는 평생교육기관에는 어떤 것이 있고, 제도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다섯째, 한마음선원에서는 대행선사의 주인공 관법 수행을 이미 체계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그리고 대행선禪의 수행방법을 사회적으로 대중화시키려면 현대인들이 직면하고 있는 우울, 분노, 불안 등의 심리적 스트레스를 완화해 줄 수 있으면서도 종교를 넘어서서 다가설 방법이 필요하다는 발제자의 의견에 동의한다. 그렇다면 이러한 프로그램으로 어떻게 종교를 넘어서서 지역사회 주민들에게 다가설 수 있는지, 구체화된 방안이 있다면 소개해 주기를 바란다.

한마음선원의 활동을 통해 지역포교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발제자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이와 같은 연구 성과들이 각 사찰에서 적극적으로 실천함으로써 실질적 포교 성과를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 논평 2 -

「한마음선원의 지역 친화 포교 활동과 개선방안」을 읽고

이석환(동국대학교 학술연구교수)

I

본고는 한마음선원의 포교 활동과 그 개선방안에 대하여 알아본 논문이다. 한마음선원의 포교 활동을 안양지역과 관련된 부분을 중심으로 알아보고 지역 친화적 포교의 필요성을 고찰한다는 점에서 사찰과 지역 사회의 성장을 도모하고자 발전방안을 제시하는 필자의 의도를 살펴볼 수 있는 논문이다. 사찰이 존재한다는 것은 사찰과 신자, 사찰과 지역 사회의 관계를 빼고는 생각할 수 없으므로 본 논문이 시사하는 점은 크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측면에서 기존의 연구는 대행스님의 사상을 중심으로 연구가 진행되었음에 반하여 본 논문은 행정과 정책, 사찰과 지역사회로 시점을 확대한다는 측면에서 의미를 가진 논문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지역과 공존하는 사찰의 특성과 대중과 사회와 함께하는 사찰의 역할이라는 측면에서도 불교의 외연 확장이라는 측면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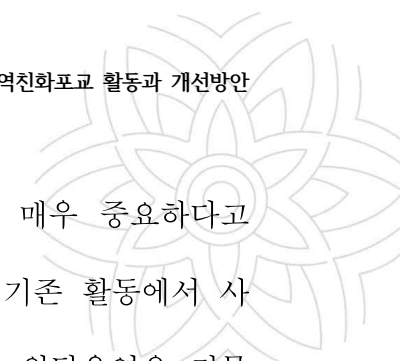
II

논문의 내용에 불교학과 사회학, 행정학의 다양한 분야가 함께 녹아있기 때문에 논평을 시작하기에 앞서 본문의 내용을 간략히 정리하고자 한다.

논자는 지역사회와 사찰의 관계가 상호 의존되고 관계를 맺고 있음을 제시하고 포교는 사람과 지역, 지역공동체와 관계를 맺고 구성원으로 자리 잡아야 한다고 한다. 붓다 당시의 불교 교단의 특징을 제시하며 포교를 위해서는 지역사회와 상호작용을 하며 공동체 의식을 강화하여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포교를 해야 하는 지역 친화 포교의 필요성에 대하여 밝히고 있다. 이후 필자는 안양의 종교 현황을 산업선교라는 측면에서 개신교의 교세가 불교보다 상대적으로 강한 안양의 현실에서 한마음선원의 위상이 높게 차지한다고 평가하고 있다.

필자는 한마음선원의 포교 활동을 ① 신도의 개성과 자율성을 중시하는 점, ② 신행 단체의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점, ③ 산하 단체를 활성화하여 다양한 포교 활동을 체계적으로 진행한다는 점을 특징으로 제시한다. 이러한 한마음선원의 지역 친화 활동을 소프트웨어 즉, 프로그램 운영과 봉사의 실천으로 제시하며 ① 문화강좌, ② 안양지역 초파일 장엄등 점등식, ③ 군포교, ④ 교도소 법회, ⑤ 병원 자원봉사 활동, ⑥ 장학사업을 제시하고 있다.

이어서 한마음선원의 지역 친화 포교방안을 생활과 신행의 측면으



로 나누어 지역공동체 운동의 측면에서 제시한다. 여기에서 필자는 특히 문화적인 측면과 복지, 교육과 수행으로 나누어 생활에서는 지역 문화공동체운동의 확대, 지역 복지공동체운동을 통해 지역과 함께 할 수 있는 방향성을 제시한다. 신행의 측면에서는 불교대학 등을 이용한 교육 포교와 한마음선원의 생활참선을 중심으로 한 관법수행의 실천을 계층과 단계로 구분하여 대행선을 프로그램화 할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다.

III

종무행정의 전문가인 필자의 현황분석과 판단, 지역사회와 연관한 포교에 대해서 평자의 이견이나 반대 의견은 없다. 하지만 한마음선원의 대중포교와 대사회포교에 대한 관심이 있는 평자의 입장에서 논자에게 궁금한 내용에 대하여 몇 가지 고견을 듣고자 한다.

첫째, 필자는 한마음선원의 지역 친화 포교방안으로 생활(문화, 복지) 지역공동체 운동을 제시하였다. 생활공간으로서 지역사회와 사찰의 공존에 대한 필자의 고민과 의견에 동감한다. 그중에서 문화포교의 구심점으로서 한마음선원의 역할과 축제개발을 위한 자치단체와의 협조에 공감한다. 그렇다면 논자가 생각하는 불교문화콘텐츠를 활용한 축제는 현재 한마음선원에서 중심이 되는 안양 및 각 지역의 연등제 이외에 어떤 것이 있는지 고견을 듣고 싶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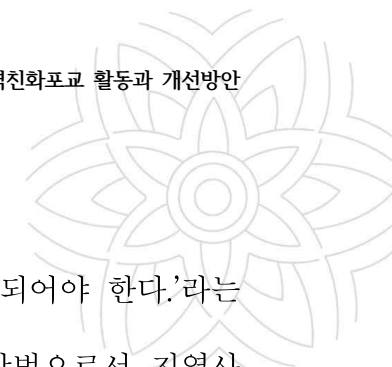
둘째, 평자는 복지를 통한 포교가 현대사회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논자도 이 부분을 강조하며 한마음선원의 기존 활동에서 사회복지시설과 활동의 부재를 지적하였다. 복지시설의 위탁운영은 전문가 집단의 확보와 기존 시설운영 업적이 필요하므로 상대적으로 시간이 필요하다. 그렇다면 시설의 위탁운영 이외에 논자에게서는 어떠한 복지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 지역사회와 한마음선원을 위한 첩경이라고 생각하는지 궁금하다.

평자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종합복지관 수탁을 통한 운영도 중요하지만, 복지와 자활보다는 아픈 사람을 감싸줄 수 있는 종합병원을 설립¹⁾하고 복지센터를 운영하는 것이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데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셋째, 필자는 한마음선원의 지역 친화적인 포교에 대하여 강조하였다. 한마음선원은 현재 국내에만 15개의 지원²⁾이 있는데, 각 지원마다 구성원과 신도들의 성격과 지역적인 특색으로 인한 포교방법의 차이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필자는 거시적인 관점에서 이러한 부분을 크게 아우르고 있는데, 미시적인 측면에서 안양 본원과 지역거점 사찰(지원)의 차이와 지역별로 특화된 포교방법이 어떠한 것이 있을지에 대한 의견이 있으면 듣고 싶다.

1) 일본에서는 각 사찰이 운영하는 병원이 근대 초기부터 설립되어 일부는 대형 종합병원으로서 지역사회의 중요한 의료기관으로 자리 잡고 있다.

2) 광명선원을 비롯하여 강릉, 공주, 광주, 대구, 목포, 문경, 부산, 울산, 제주, 중부경남, 진주, 청주, 통영, 포항이 있다.(가나다순)



넷째, 필자가 강조하는 신행 운동에서 교육을 통한 포교가 매우 중요하다라는 점을 평자도 동의한다. 특히 신도교육을 확장해 사회교육과 평생교육을 해야 한다는 점에서 평자도 같은 생각을 갖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논자는 불교대학을 기반으로 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운영을 방안으로 제시하였는데, 조금 더 구체적인 예시(예를 들어 교육내용과 교육방법)를 들어주면 많은 참고가 될 것 같다.

또한, 질문의 연장 선상에서 한마음선원에서 내부와 지역사회 문화 교육 이외에 국가에서 공인받아 운영할 수 있는 공식 교육기관은 없는지, 있다면 논자가 생각하는 효과적인 교육기관은 무엇인지 알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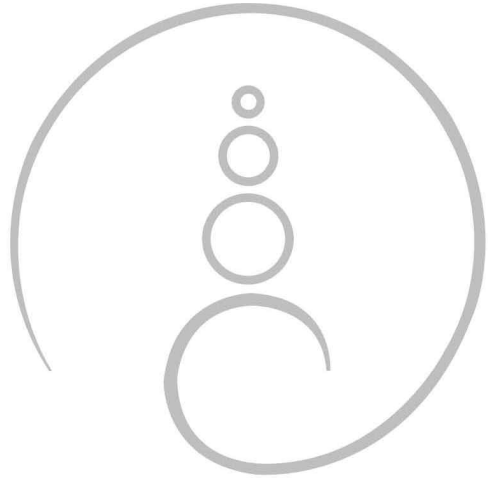
마지막 다섯째, 생활참선 도량으로서 한마음선원은 각 지역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필자께서 제시한 계층별, 단계별 대행선 프로그램 운영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현재 한마음선원에서는 대행선을 기반으로 부모, 교사를 위한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그리고 직장인, 청년, 학생 등 계층별 법회에서 주인공 관법과 실천을 통한 생활수행을 이야기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내부의 교육과 수행을 어떠한 방법을 통해 지역사회로 돌려 많은 사람이 자신을 믿고 맡기는 대행스님의 생활수행 관법을 활용할 수 있을지 세부적인 프로그램이나 운영방법이 있으면 알려주시기 바란다.

IV

‘포교에 의한 교단과 사찰의 성장은 지역에 회향 되어야 한다.’라는 필자의 의견에 매우 공감한다. 특히 선순환을 위한 방법으로서 지역사회로 선원을 되돌려 놓아 함께 성장시켜야 한다는 점이 본원이 있는 안양뿐만 아니라 각 지역의 지원도 지역사회와 함께 오랫동안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에 동의한다.

한마음선원의 포교 활동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특히 지역을 중심으로 한 포교 현황과 전략에 대하여 심도 있게 준비한 논자에게 감사를 드리며, 이러한 연구를 기반으로 지역민과 함께하는 포교의 거점으로서 한마음선원 본원과 지원의 역할을 기대한다.

언젠가 선원의 스님과 대화하다 듣게 된 ‘선원은 100년이 지나도 언제나 같은 곳에 있어야 한다’는 대행스님의 말씀이 생각난다. 100년이 지나도 언제나 모든 사람과 함께 할 수 있는 지역사회의 문화와 포교의 중심지로서 한마음선원이 자리하기를 기대해본다.



이현중 (충남대학교)

대행사상과 주인공 관법

I. 서론	54
II. 한마음의 나툼과 회향	56
III. 한마음의 회향과 주인공 관법	63
IV. 한마음의 나툼과 주인공 관법	70
V. 결론	78

I. 서론

대행선사(묘공당妙空堂 대행大行, 1927-2012)는 우리 국민이 나라를 잃고 수탈과 고통 속에서 인내의 세월을 보내야 했던 20세기 말에서 21세기 초기를 살다간 선지식이다. 그는 간난艱難의 삶을 실체화하지 않고, 끊임없이 새롭게 창조하여 온 세상을 이롭게 하는 자유자재한 삶을 보여 주었다.¹⁾

그는 ‘지금 여기 나’의 삶을 통하여 불교를 논하고, ‘지금 여기 나’를 통하여 부처를 논하며, ‘지금 여기 나’의 삶을 통하여 종교를 논하고, 진리를 논하였다.²⁾ 대행은 우리의 삶을 과거화 하여 물건적物件的 관점에서 이해하지 않았고, 또한, 미래화하여 이치·원리의 관점에서 이해하지 않았다.³⁾ 대행은 ‘지금 여기 나’를 시간의 측면에서 영원한 ‘현재’로 나타내어서 영원한 현재를 중심으로 불교를 논하고 있다.⁴⁾ 그가 제시하고 있는 ‘지금 여기 나’의 ‘지금’은 과거와 미래가 하나가 된 영원한 ‘현재’이며, ‘여기’는 천국과 지옥, 정토淨土와 예토穢土가 하나가 된 ‘여기’이고, ‘지금 여기 나’는 부처와 불성이 둘이 아니고, 부처와 중생이 둘이 아닌 ‘나’이다.

그가 제시한 ‘지금 여기 나’의 삶은 부처와 중생, 원각圓覺과 불각不覺,

1) 『한마음 요전』(1993), 415.

2) 『허공을 걷는 길』 국외지원법회3(2011), 1891-1892.

3) 이현중(2020), 392-395.

4) 『한마음 요전』(1993), 367-368.

성불成佛과 불성불不成佛이 양립할 수 없는 고정된 실체적 세계가 아니라 화化하여 나투고 돌아가는 유수流水와 같은 흐름이다. 대행은 고정됨이 없이 나투고 돌아가는 세계를 한마음으로 나타내어 지금 여기의 삶을 한마음의 나툼과 회향으로 밝히고 있다.⁵⁾ 그리고 한마음의 나툼과 회향을 ‘지금 여기 나’를 중심으로 주인공 관법觀法으로 제시하였다.

주인공 관법觀法은 깨달음을 얻어서 증오성불證悟成佛하는 수도修道, 수행修行의 측면이 있을 뿐만 아니라 깨달음 이후의 중생과 함께 살아가는 제도濟度의 측면을 함께 갖고 있다. 그것은 그가 수도와 제도, 부처와 중생, 성불과 불성불을 구분하기 이전의 양자를 구분할 수 없는 본성·자성·불성의 관점에서 삶을 관법으로 제시하였음을 뜻한다.⁶⁾ 그러나 주인공 관법에 대한 지금까지의 연구 성과들은 주로 수행의 측면에서만 관법을 연구하였고, 수도와 제도를 넘어선 삶 그 자체의 관점에서 관법을 연구한 성과가 없으므로, 관법의 전모를 밝히는 데 한계를 보인다.⁷⁾

5) 『한마음 요전』(1993), 321-322.

6) 『허공을 걷는 길』 법형제법회2(2007), 1159-1178.

7) 대행선사의 사상에 관한 연구는 한마음선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대행선 연구원을 통하여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대행선 연구원에서는 학술대회와 계절발표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그 성과를 『한마음연구』를 통하여 발표하고 있다. 『한마음연구』 제1집에서 제5집에 수록된 연구논문들을 중심으로 관법에 관한 연구 성과들을 보면 이상호, 「대행선관법의 체계에 관한 고찰」(1), (2), 황금연, 「대행선사의 선수행관에 관한 연구, 오지연, 법화천태교관과 대행선사의 관법, 오용석, 「대행선사의 간화와 주인공 관법에 대한 고찰, 안유숙, 「유식관법과 한마음 주인공 관법의 비교고찰」, 김호귀, 「대행선 수증관의 구조와 원리」, 박소령, 「대행의 주인공 관법에 대한 고찰」을 들 수 있다.

이 가운데서 이상호의 「대행선관법의 체계에 관한 고찰」(1), (2)와 황금연의 「대행선사의 선수행관에 관한 연구」, 박소령의 「대행의 주인공 관법에 대한 고찰」은 대행선사의 관법을 대상으로 연구한 성과이며, 오지연의 「법화천태교관과 대행선사의 관법」, 오용석의 「대행선사의 간화와 주인공 관법에 대한 고찰」, 안유숙의 「유식관법과 한마음 주인

이에 본고에서는 대행이 제시한 생활법으로서의 주인공 관법이 무엇인지를 고찰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먼저 한마음의 나툼과 회향에 대하여 살펴보고, 이어서 한마음의 회향의 관점에서 주인공 관법에 대하여 살펴볼 것이며, 마지막으로 한마음의 나툼의 관점에서 주인공 관법에 대하여 고찰하고자 한다.

II. 한마음의 나툼과 회향

대행은 언제나 ‘지금 여기 나’를 중심으로 부처와 불법, 불교, 불성, 진리, 열반, 성불을 말한다. 그것은 그가 나와 하나가 된 불교, 삶과 하나가 된 진리, 지금 여기와 하나가 된 부처, 지금 여기와 하나인 성불을 논함을 뜻한다. 그러면 대행은 ‘지금 여기 나’라는 고정된 실체를 언급하는 것인가?

공 관법의 비교고찰, 김호귀의 「대행선 수증관의 구조와 원리」는 대행선사의 관법과 다른 수행법을 비교하여 고찰한 성과이다.

그런데 지금까지의 대행선사의 관점에 대한 연구 성과는 다음과 같은 문제를 안고 있다. 첫째는 그동안의 연구 성과는 주로 조사선, 간화선, 묵조선, 화엄교학, 법화교학 등과 비교하여 관법이 무엇인지를 밝히는데 집중되어 있어서 대행선사가 강조하는 나툼과 회향으로 드러나는 흐름의 관점에서 연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는 그동안의 연구 성과는 주로 관법을 견성성불과 같은 성불을 중심으로만 연구하였을 뿐이다. 대행선사는 관법을 견성, 성불, 열반의 세 단계를 중심으로 밝히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일상의 삶이 그대로 수행이자 제도濟度임을 밝히고 있다. 따라서 견성, 성불과 더불어 열반의 경계를 중심으로 관법을 고찰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는 그동안 관점에 대한 연구는 주로 수행의 측면에서 이루어졌다. 그러나 대행선사는 수행과 제도가 둘이 아닌 차원에서 삶이 그대로 수도이자 제도임을 밝히고 있다. 따라서 수도修道와 제도濟度가 둘이 아닌 삶 자체의 관점에서 관법을 고찰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는 “모든 중생은 본래부터 화하여 나투고 돌아간다.”⁸⁾고 말한다. 그가 말하는 중생은 장차 부처가 될 수 있지만, 지금은 부처가 아닌 중생이 아니라 부처와 중생이라는 고정된 틀을 벗어나 때로는 부처로, 때로는 보살로, 때로는 중생으로 화하여 나투고 돌아감을 뜻한다. 따라서 그가 말하는 중생은 ‘지금 여기 나’를 가리키는 개념이다.

‘지금 여기 나’는 고정되지 않고 끊임없이 화하여 나투고 돌아간다. 그것은 지금이라는 시간도 고정되지 않아서 삼세심三世心이 일심이어서 없을 뿐만 아니라 여기라는 공간도 고정되지 않아서 다양하게 드러나고, 나도 역시 끊임없이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났다가 사라질 뿐이어서 고정되지 않음을 뜻한다.⁹⁾ 지금 여기라는 시공, 세계, 우주가 고정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나도 역시 고정되지 않음은 세계와 내가 일정한 모습으로 있는 것이 아니지만 그렇다고 하여 없는 것이 아니다. 다만 끝없이 변화하여 화하고 나투는 동시에 변화하여 나투기 이전으로 돌아가는 나툼과 회향의 연속일 뿐이다. 대행은 지금 여기의 내가 중생과 부처를 넘어서 있으면서도 때로는 중생으로 때로는 부처로 드러나서 고정되지 않음을 나타내기 위하여 주인공이라는 개념을 사용한다. 그는 주인공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8) 『한마음 요전』(1993), 780.

9) 『한마음 요전』(1993), 568.

주인공은 마치 허공과 같아 무너지는 일도, 변하는 법도 없으면서 삼계의 모든 것에 나투고 모든 것을 기르고 되돌려 거두어들이기도 한다. 그러므로 주인공엔 나와 너의 나눔이 없다.¹⁰⁾

인용문을 보면 그가 주인공을 세 측면에서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 하나는 변화가 없는 영원한 측면이며, 두 번째는 화하여 나투는 측면이고, 세 번째는 거두어들이는 측면이다. 화하여 나투는 것은 변화하는 현상을 나타내고, 거두어들임은 현상이 본래의 자리로 돌아감을 나타낸다.

주인공이 변화가 없음은 시공을 초월함을 뜻하며, 화하여 나투고 돌아감은 변화의 현상으로 드러나지만 드러남이 없음을 뜻한다. 변화하는 현상 곧 나툼의 측면에서는 주체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주인主人이라고 할 수 있지만,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는 회향의 측면에서는 있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공空이다. 나툼과 회향이라는 변화의 세계에는 나와 남이라는 실체적 존재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인용문의 마지막 부분에서 주인공에는 나와 남의 구분이 없다고 하였다. 그것은 실체적 존재로서의 부처와 중생, 무명과 원각, 성불과 불성불, 불성과 부처가 없음을 뜻한다. 나툼의 측면에서 보면 주인공은 끊임없이 새롭게 창조되어 나타나며, 회향의 측면에서 보면 주인공은 현재화한 창조 작업이 과거화하고 다시 미래로 돌아가서 무화無化된다. 따라서 ‘나툼’의 측면에서 보면 부처와 중생이라는

10) 『한마음 요전』(1993), 325-326.

나툼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회향’의 측면에서 보면 있다고 할 수 없다.

변화의 측면에서 보면 화한 ‘나툼’은 창조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고,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는 회향은 진화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수행과 제도의 측면에서 살펴보면 회향이 수도의 과정이라면 나툼은 제도의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회향은 단순하게 과거화된 사물을 무화시키는 작업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나투어 과거화한 사물을 미래화未來化하여 다시 본래의 상태로 되돌려서 과거화過去化하는 작업 곧 새롭게 창조하는 작업이다.

나툼과 회향을 씨와 열매의 관계를 통하여 이해하면 회향은 열매를 새로운 씨로 심어주는 작업이라면 나툼은 씨가 열매로 맺어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씨가 변하여 싹으로 화함으로써 비로소 현상적 측면에서 생명 현상으로 나타나는 것과 같은 작용과 결과를 나타내는 개념이 ‘나툼’이다.

주인공은 말없이 모습을 나투고 말없이 일을 한다. 마음은 체가 없기에 화해서 무엇이든 될 수 있다. 중생이 보기에 고정적인 형상이 있는 것 같지만 절대라는 것은 없다. 오직 끝없는 나툼이 있을 뿐이다. 그러기에 부처님은 삼십이응신이 구족하다 하는 것인데 중생의 마음에 따라 무엇으로든 나투신다.¹¹⁾

11) 『한마음 요전』(1993), 358.

대행은 나툼과 회향의 세계 곧 끊임없이 생성의 과정이 연속되어 시종(始終)과 중시(終始)를 구분할 수 없는 세계를 삼공법(三空法)으로 나타내고 있다. 사물적 관점에서 그 어떤 분별도 벗어나 있어서 가치상의 우열이 없는 세계를 평등공법(平等空法)으로 나타내고, 그러한 세계가 고정됨이 없이 끊임없이 변화하여 나투는 세계임을 활궁공법(活宮空法)으로 나타내며, 만법이 서로를 존재하게 하는 공생(共生), 공존(共存)의 세계를 수레공법(空法)으로 나타내고 있다.¹²⁾

부처·불성·자성·주인공·한마음이 본성에 의하여 하나의 상태를 고집하지 않고 그 상태에서 벗어나는 것을 평등공법(平等空法)으로 나타내고, 그것이 타자화(他者化)하여 수많은 생명현상으로 화함을 나타내는 것이 활궁공법이며, 만법의 서로가 서로의 존재근거가 되어 서로를 존재하게 해주는 나툼의 세계를 수레공법(空法)으로 나타내었다.¹³⁾

삼공법을 나툼과 회향의 측면에서 살펴보면 평등공법에서 활궁공법을 거쳐서 수레공법에 이르는 방향이 변하여 화하고 나타나는 나툼의 측면이라면 그 이면에서는 나투고 화하여 돌아가는 작업이 함께 이루어진다. 그것은 나툼이 이루어지는 동시에 다시 부처, 불성, 한마음, 주인공의 자리로 돌아가서(歸) 하나가 되어(一) 사라지는(無) 회향의 과정이다.¹⁴⁾ 그런데 물건적 관점에서는 나툼과 회향의 사건을 물건화하여 이

해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평등공법을 법신(法身)으로, 활궁공법을 화신(化身)으로 그리고 수레공법을 보신(報身)으로 물건화하여 나타낸다. 삼공법을 물건화하여 삼신(三身)으로 나타내는 까닭은 현상으로부터 본체로서의 불성을 찾아가는 회향의 관점이 중심이 되어 보신으로부터 화신으로 그리고 다시 화신에서 법신으로의 진화하는 수행을 논하기 위함이다.

수행이 ‘지금 여기 나’와 다른 나, 중생이 아닌 부처, ‘지금 여기 나’의 삶이 아닌 부처의 삶을 지향(志向)할 때 ‘지금 여기 나’의 삶과는 둘이 된다. 따라서 우리가 수행을 논할 때는 반드시 그것이 ‘지금 여기 나’와 하나가 되는 실천, 제도(濟度)를 함께 논하게 된다. 삼공법은 ‘지금 여기 나’와 삶 그리고 세계를 나타낸다. 따라서 삼공법은 그대로 ‘지금 여기 나’의 삶을 살아가는 생활법이다. 그것은 삼공법이 ‘지금 여기 나’를 통하여 부처가 드러나고, ‘지금 여기 나’를 통하여 부처의 삶이 이루어짐을 나타냄을 뜻한다. 지금 여기의 내가 부처이기 때문에 삼공법은 부처로 살아가는 방법이자 부처를 활용하는 방법, 부처로 살아가는 실천법이다. 대행은 수행을 ‘지금 여기 나’의 삶이 그대로 활용법임을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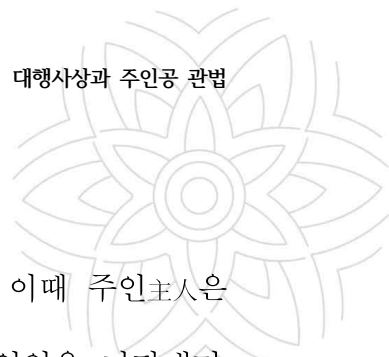
우리가 태어난 것이 바로 활용법의 근본이다. 그대로 생명이요, 그대로 마음이요, 그대로 고정됨이 없이 나투고 돌아감이니 그대로 용인 것이다.¹⁵⁾

15) 『한마음 요전』(1993), 674.

12) 『허공을 걷는 길』 일반법회4(2018), 563.

13) 『허공을 걷는 길』 일반법회4(2018), 275-276.

14) 이현중(2021), 197-198.



삼공법이 나타내는 화하여 나투고 돌아가는 나툼과 회향의 세계는 변화의 세계이다. 그것이 인간의 삶에서는 활용법으로서의 실천법이 된다. 그러면 삼공법을 실천의 관점에서 어떻게 이해야 하는가? 대행은 ‘지금 여기 나’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부처의 활용으로서의 실천법을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가만히 있으면 생각 내기 이전 부처요, 생각을 냈다 하면 범신·문수요, 움직였다 하면 보신·화신이요 보현이다.¹⁶⁾

부처의 활용은 마음을 내고, 육신을 움직이는 심신心身의 운용運用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그것은 마음과 몸이 둘임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몸과 마음을 하나로 하여 운용함을 뜻한다. 이때 대행은 심신心身을 하나로 하여 운용하는 활용을 한마음을 통하여 나타낸다. 그러면 한마음은 무엇인가? 그는 의식과 동일시되는 마음과 다르고, 부처의 작용, 불성의 작용으로서의 마음과도 다르지만 양자를 벗어나지 않는 한마음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불성은 오직 하나라는 의미에서 한마음이요, 너무나 커서 한마음이며, 전체라서 한마음이고, 일체 만물이 그로부터 비롯되니 한마음이다.¹⁷⁾

16) 『한마음 요전』(1993), 389.

그는 한마음을 주인공主人空으로 나타내기도 하였다. 이때 주인공主人은 “한마음이 나의 주인이자 모두의 주인이고 삼계의 주인임을 나타내며, 공空은 고정됨이 없이 화하여 나툼을 뜻한다. 따라서 주인공主人은 하나의 자리를 나타내고, 공空은 고정됨이 없이 돌아감을 뜻한다.”¹⁸⁾

Ⅲ. 한마음의 회향과 주인공 관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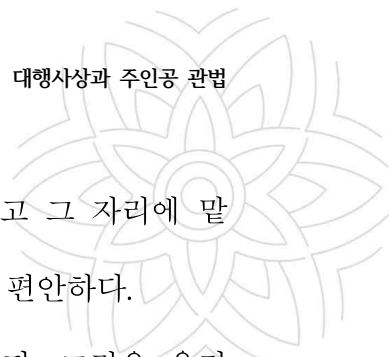
대행이 제시한 변화의 세계는 나와 세계의 분별이 없는 차원에서 끊임없이 나와 세계가 새롭게 창조되어 나타나는 동적動的인 세계이다. 그것은 그가 제시하는 나툼의 세계는 그 어떤 것도 ‘지금 여기 나’와 둘이 아니라 ‘지금 여기 나’를 통하여 그리고 ‘지금 여기 나’의 삶 가운데서 나투고 회향함을 뜻한다.

그가 ‘지금 여기 나’를 중심으로 세계를 나타내기 위하여 사용하는 주인공이라는 개념은 세계의 측면에서는 변화의 세계를 나타내는 동시에 ‘지금 여기 나’의 측면에서는 나의 삶을 나타낸다. 대행은 주인공의 나툼과 회향을 ‘지금 여기 나’의 삶을 중심으로 관법觀法¹⁹⁾으로 나타내었다. 관법은 한마음, 주인공에 의하여 만법을 받아들이고 내는 생활법이

17) 『한마음 요전』(1993), 312.

18) 『한마음 요전』(1993), 319.

19) 『허공을 걷는 길』 법형제법회1(2007), 441.



다. 따라서 관법은 주인공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주인공 관법이다. 주인공 관법 觀法의 관觀은 만법萬法이 하나로 돌아가는 관점 곧 수레공법으로부터 평등공법을 향하는 방향에서 인간의 삶을 나타낸 것이고, 법法은 주인공, 자성이라는 하나로부터 만법이 나투는 관점 곧 평등공법에서 수레공법을 향하는 방향에서 삶을 나타낸 것이다.

그는 관법이 갖는 두 방향의 특징을 나툼과 회향廻向으로 나타낸다. 주인공의 나툼을 나타내는 법法은 끊임없이 새롭게 자신을 드러내는 창조적 작용이지만 나툼의 결과로서의 현상은 다시 근원인 불성, 자성으로 귀체歸體, 귀공歸空되는 회향廻向의 측면에서는 일종의 무화無化작용이다. 이처럼 주인공의 나툼이 다시 주인공으로 귀공되는 것이 회향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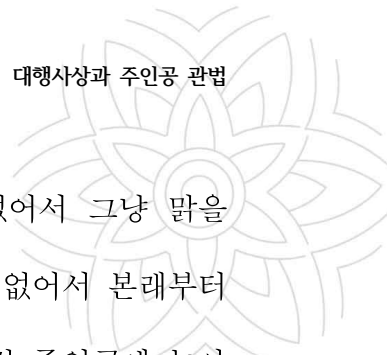
법계가 삼공법에 의하여 나툼과 회향의 연속이듯이 우리의 삶은 주인공의 나툼과 회향일 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만나는 모든 일이 주인공의 ‘나툼’임을 알고 그 자리에 회향시키는 동시에 그것을 통하여 주인공으로 하여금 나투도록 하는 것이 삶이다. 우리는 일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안팎에서 수많은 사건과 사물을 만나게 된다. 그때 사물을 실제로 여기고 그것에 집착하여 시비, 선악, 미추의 가치를 부여하여 소유하고자 하면 삶은 왜곡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우리는 삶의 과정에서 만나는 안팎의 사물에 마음이 끌려가지 않고 내면의 자성, 주인공으로 돌려야 한다.

일상의 삶 가운데서 마음이 사물에 끌려가지 않기 위해서는 믿음

필요하다. 만나는 사물마다 그것이 자성의 나툼임을 믿고 그 자리에 맡기면서 삶을 살아가면 근심이나 걱정, 두려움이 없어서 편안하다.

주인공을 믿고 맡길 때는 지켜보는 기다림이 필요하다. 그것은 우리가 그 자리에 맡기고 어떤 일을 하더라도 그 결과에 대하여 간섭하지 않음을 뜻한다. 설사 우리가 믿고 맡기면서 일을 했을 때, 일이 생각과 달리 성사가 되지 않더라도 그것도 또한 그 자리의 일이기 때문에 잘못 되었다거나 성사가 되지 않았다고 판단할 필요가 없다. 모든 일들이 자성, 주인공의 나툼임을 믿고(信), 그 자리에 맡기면서(任), 해야 할 일을 처리하고(行), 그 결과를 지켜보는(觀) 삶은 과거를 무화無化시키는 동시에 미래를 새롭게 창조하는 작업이다. 그것은 소극적으로는 지금 나타나는 결과를 자성이라는 용광로에 던져서 녹이는 과정인 동시에 적극적으로는 용광로에서 새로운 원인을 창조하는 작업이다. 대행은 관법을 통하여 과거의 인과가 녹고 미래의 새로운 삶이 창조됨을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녹음이 되어 있는 테이프에 다시 녹음을 하면 앞서의 녹음 내용은 지워지고 새 내용이 녹음된다. 그러므로 악업보다는 선업을 녹음해야 한다. 그러나 선업을 녹음하기보다는 악업도 선업도 모두 쉬고 이 도리를 알아 진리에 맡겨 뉘으로써 공 테이프를 만들어라. 비유하자면 그것은 오랜 세월 동안 먼지에 뒤덮인 거울일지라도 한번 닦아 냴으로써 당장 깨끗해지는 것과 같다.²⁰⁾



우리의 과거는 현재의 기억으로 있으며, 미래는 지금의 기대, 희망으로 있다. 따라서 기억과 희망을 갖더라도 그것을 대상화對象化하여 실재實在하는 것으로 여기고 가치를 부여하여 소유하고자 집착하는 것을 버려야 비로소 새로운 희망을 현실화할 수 있다.

대행은 관법을 통하여 과거의 기억과 미래의 희망을 고정화하여 소유할 때 업이 되지만 소유하지 않으면 끊임없이 새롭게 미래를 창조할 뿐으로 자유롭게 비우고 채워짐을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업을 짊어지고 나와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나오는 대로 거기다 되놓고 또 되놓고 하면 앞서의 것은 새로 넣는 대로 없어진다. 그러므로 업이 붙을 틈이 없게 된다. 육조 혜능선사께서 “먼지 앓을 틈이 없는데 어찌 털고 닦을 게 있느냐?” 하신 것은 몰락 되놓으면 공 테이프 본래의 모습일 뿐이라는 이야기이다. 짊어지고 나온 것을 몽땅 맡겨 놓아 그게 모두 없어지면 그 다음엔 채워지고 비워지고, 채워지고 비워지면서 채우고 비우고가 없이 본래로 맑을 뿐이니 더러운 그릇을 수돗물이 활활 쏟아지는 데다 갖다 놓았을 때 자연적으로 넘치고 또 넘치고 해서 더러움은 싹 가시고 맑은 물만 고이는 이치와 같다.²¹⁾

안팎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자성, 주인공에게 맡기고 살아가면 비우고 채워지는 반복을 통하여 본래 채움이 없기 때문에 비워도 비움이

아니며, 본래 비움이 아니기 때문에 채워도 채움이 없어서 그냥 맑을 뿐임을 알게 된다. 비워도 비움이 없고, 채워도 채움이 없어서 본래부터 맑은 자리를 발견하는 것을 견성見性이라고 한다. 이처럼 주인공에 놓아버리는 과정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마음을 오로지 주인공에게 집중하는 일심一心이 되어야 한다. 우리가 일심一心으로 관법을 실천하면 의식에 의하여 살아가던 습癖이 녹으면 비로소 자성, 주인공을 발견하게 된다. 견성은 의식에 의하여 인간의 심층으로서의 본성, 자성을 발견한 것을 뜻한다. 대행은 견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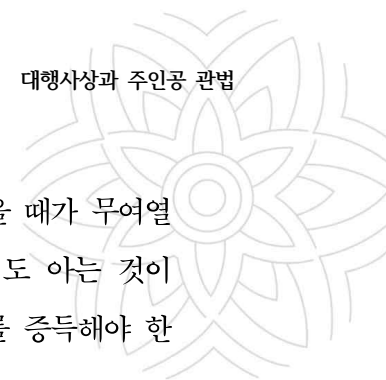
거기에다가 모든 것을 일거수일투족을 다 났을 때에 비로소 과거의 나와, 즉 말하자면 주인공의 성품을 부父라고 한다면, 현재에 사는 나의 마음을 자子라고 한답니다. 자와 부가 한데 합쳐졌을 때에 바로 내 정통의 마음은 탄생하는 겁니다. 그거를 견성이라고 하죠.²²⁾

견성은 자성을 발견하였지만 본래 자성自性과 내가 하나임을 체득體得하지 못한 상태이다. 자성이 있음을 알면 자성과 소통을 하면서 삶을 살아가게 된다. 견성을 한 후에 비로소 본격적인 자성과 의식의 소통이 시작된다. 마음이 오로지 자성에 집중이 되면 자성과 의식이 본래 하나임을 알게 된다. 이때 자성은 나와 남, 나와 사물, 나와 세계의 구분이 없기 때문에 수행자는 삶의 과정에서 만나는 모든 안팎의 일들을 무심

20) 『한마음 요전』(1993), 400.

21) 『한마음 요전』(1993), 400.

22) 『허공을 걷는 길』 정기법회4(2017), 325.



無心하게 대한다. 이처럼 무심으로 살아갈 때 비로소 그는 사람다운 사람의 삶을 걸어가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 대행은 이를 성불成佛이라고 하여 그 성격을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부처님께서 “견성을 했어도 했단 말 하지 말라”고 하셨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어린애를 방금 낳은 거와 같으니까 말입니다. 그래서 어린애를 낳은 것을 돈오頓悟라고 한다면, 어른이 될 때까지 길러지는 것은 점수漸修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 길러져서 어른이 된다면 그거는 성불이라고 하겠죠, 어른이 됐을 때.²³⁾

무심한 상태에서 안팎에 일어나는 모든 일을 자성을 믿고 맡기면서 살아가면 성인成人, 성불成佛의 단계에서 나타나는 나와 남, 나와 세계가 하나가 된 상태가 자유롭게 전개되는 경계가 나타난다. 그것은 무심無心の 단계를 넘어서 공심共心에 이르게 되면 온 우주의 모든 존재와의 소통이 이루어지는 동시에 함께 하는 삶이 시작됨을 뜻한다. 대행은 그것을 구경의 경지境地에 이른 열반경계涅槃境界라고 말한다. 대행은 열반의 경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아무것에도 걸림이 없는 나투고 응해주고 불바퀴를 굴릴 수 있는 절대적인 자유, 한 생각에 삼천大千 세계를 녹일 수도 있고, 한 생각에 삼천大千 세계의 업을 짊어질 수 있어야 이룸하여 열반이라 한다. 그

23) 『허공을 걷는 길』 정기법회4(2017), 325.

러나 그 열반의 경지에 이르렀다는 생각조차 놓아 버렸을 때가 무여열반이니, 무여열반에 이르러야 유여열반으로 돌아올 줄 도 아는 것이다. 빼도 없고 살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자리, 그 자리를 증득해야 한다.²⁴⁾

열반이 하나의 단계, 경계를 나타내지만 고정된 실체적 사건을 가리키지 않는다. 그것은 자유자재自由自在함에 다름 아니다. 이에 대하여 대행은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열반이라 함은 이 몸이 늙고 젊고 간에 이 몸을 지닌 채로 자재권自在權을 가지고 생각 있는 중생, 생각 없는 중생을 다 포함해서 둘 아니게 나눌 때, 그 어떤 것으로 나뉠 것을 꼬집어나라고 세울 수 없으니 그것이 열반이다. 말하자면 살아서 열반하는 것이지 죽어서 열반하는 게 아니다. 육신을 살려 놓은 채 이승 저승을 회전할 수 있어야 열반 경지라 이룸 할 수 있다.²⁵⁾

대행은 열반의 경계는 지금 여기를 떠나서 도달하는 차원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 이루어지는 삶의 과정을 통하여 도달하는 나의 경계로 규정하고 있다. 결국, 그가 제시하는 열반의 경계는 실체적인 차원이 아니라 끊임없이 확장하는 변화의 경계임을 알 수 있다.

24) 『한마음 요전』(1993), 593-594.

25) 『한마음 요전』(1993), 594.

IV. 한마음의 나뉠과 주인공 관법

대행은 한마음의 회향의 관점에서 주인공 관법을 견성見性, 성불成佛, 열반涅槃의 세 단계로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그는 세 단계를 단계 아닌 단계라고 말한다.²⁶⁾ 그것은 그가 비록 이전의 수행 단계에 따라서 세 단계로 나타냈지만 하나임을 뜻한다. 그러면 우리는 견성, 성불, 열반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우리가 견성과 성불 그리고 열반을 구분하여 이해하면 ‘지금 여기 나’와 다른 견성, 성불, 열반이라는 사건이 존재함을 전제로 한다. 이처럼 ‘지금 여기 나’와 둘인 견성, 성불, 열반은 다시 수행과 제도, 깨달음과 깨닫지 않음, 부처와 중생이라는 분별을 낳게 된다. 견성과 성불을 구분하여 나타내면 반드시 깨달음과 닦음, 앎과 실천이 하나인가 둘인가의 문제가 제기되고, 다시 성불과 열반이 둘인가 하나인가의 문제가 제기된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어떤 사건이나 물건도 고정되지 않기 때문에 변화의 관점에서 이해함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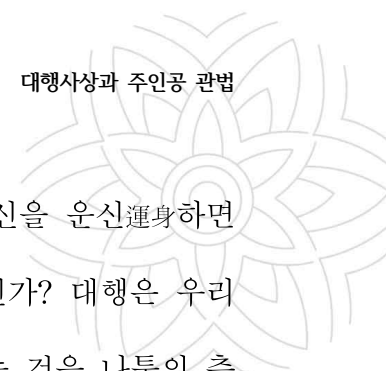
대행은 견성과 성불, 열반을 변화의 관점에서 한마음의 나뉠과 회향으로 이해한다. 한마음의 나뉠과 회향은 그대로 ‘지금 여기 나’의 삶으로 나타난다. 그렇기 때문에 견성과 성불, 열반이 모두 삶의 과정에서 일어나는 사건일 뿐이다. 그가 제시한 관법에 의하면 견성은 본래의 자

26) 『한마음 요전』(1993), 575.

신을 발견하는 일이며, 성불의 본래의 자신과 하나가 되는 일이다. 그러므로 그는 견성성불을 유위법有爲法으로 이해하지 않고 본래의 나인 한마음의 나뉠으로 이해한다. 그가 견성, 성불을 자신을 발견하여 자신이 되는 과정으로 이해하기 때문에 관법을 통하여 그가 나타내고자 하는 삶은 나뉠의 경계인 열반에 있다. 그는 열반이란 그 어떤 것으로부터 벗어나거나 얻는 상태가 아니라 자신으로 살아감을 나타낸다. 대행은 “육신을 살려 놓은 채 이승 저승을 회전할 수 있어야 열반 경지라 이룰 수 있다.²⁷⁾”라고 하여 일상의 삶 가운데서 주인공으로 살아가는 삶을 열반으로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견성과 성불 역시 한마음 주인공의 나뉠을 구분하여 나타낸 것일 뿐이다. 그러면 한마음의 나뉠의 관점에서 관법은 무엇인가?

그는 한마음의 나뉠의 관점에서 견성과 성불, 열반을 모두 일상의 삶으로 이해한다. 그것은 대행이 삶의 과정에서 만나는 안팎의 모든 일을 처리하는 과정을 견성, 성불, 열반으로 구분하여 나타냈을 뿐으로 별개로 이해하지 않음을 뜻한다. 대행이 견성과 성불 그리고 열반을 일상의 삶의 과정일 뿐이라고 말하는 것은 바로 일상의 삶이 한마음의 ‘나뉠’임을 뜻한다. 그는 한마음의 나뉠의 관점에서 우리가 일상의 삶을 살아감을 요리한다고 말한다. 따라서 견성, 성불, 열반을 한마디로 나타내면 삶의 요리라고 할 수 있다.

27) 『한마음 요전』(1993), 594.



저기 씨 붙인 불佛자 하나가 이 모두를 다 말하고 있습니다. 저 ‘불佛’자 하나는 바로 여러분들의 영원한 근본, 생명, 핵을 뜻합니다. 그 핵이 아니면 우리가 쉴 사이 없이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만약 마음대로 돌아갈 수가 없다면, 자기가 먹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요리해 먹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²⁸⁾

대행이 일상의 삶 가운데 안팎으로 만나는 모든 일을 요리한다고 말하는 것은 주인공 관법을 통하여 삶을 살아감을 뜻한다. 그것은 그가 삶을 고정된 것이 아니라 매 순간 만나는 일들을 주인공을 통하여 새롭게 창조하는 측면에서 이해하고 있음을 뜻한다.

에너지는 바로 여러분한테 있습니다. 즉 광력이나 전력이나 자력이나 통신력이 그대로 여러분한테 주어져 있는 것이므로 오신통이라는 이 자체가 바로 에너지 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여러분의 몸이 만약 오븐이라고 한다면, 그 속에 넣어서 마음대로 먹고 싶은대로 요리해 먹을 수 있는 그런 재료입니다. 무엇이든 다 해먹을 수 있는 이 모든 재료가 다 우리 마음 가운데 본래부터 갖춰져 있다는 말입니다.²⁹⁾

한마음의 나뭇의 측면에서 보면 주인공 관법은 한마음에 의한 만법의 나뭇을 지켜보는 것이 이다. 이때 나뭇을 지켜봄은 그저 단순한 지켜봄

이 아니라 한마음에 믿음으로 맡기고 마음을 내어 육신을 운신運身하면서 지켜봄이다. 그러면 나뭇의 관점에서 관법은 무엇인가? 대행은 우리가 삶의 과정에서 만나는 모든 일을 여법하게 처리하는 것을 나뭇의 측면에서 개구리탕, 용탕으로 나타낸다.

오늘부터 한 생각을 잘 내시기 바랍니다. 한 생각을 잘 내면 구덩이에서 나올 수도 있고, 한 생각을 잘못내면 구덩이로 빠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말 한마디 이렇게 하고 나면 백 년이 흐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즉각 즉각 변하지 않는 음식을 즉석에서 해 잡수셔야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한 생각만 잘하면, 그냥 즉석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즉석요리 말입니다. 조그만 개구리탕이라도 즉석에서 해 먹을 수 있고, 용탕도 즉석에서 해 먹을 수 있습니다.³⁰⁾

개구리탕은 성불의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삶을 나타낸 것이며, 용탕은 성불의 차원을 넘어서 이루어지는 삶을 나타낸다. 그는 삶을 개구리탕에 비유하여 다음과 같이 나타내고 있다.

앞아서 모든 것이 나가서 천백억화신으로서 응하고 모든 것을 대적하고 나가는 데에 손색이 없다. 이러는 것을 자유스럽게 하는 것을 바로 개구리탕이라고 이름을 했던 겁니다.”³¹⁾

28) 『허공을 걷는 길』 국외지원법회1(2015), 118.

29) 『허공을 걷는 길』 국외지원법회1(2015), 118.

30) 『허공을 걷는 길』 국외지원법회1(2015), 132.

31) 『허공을 걷는 길』 국외지원법회2(2011), 1070.

개구리탕은 자생 중생의 제도를 넘어서 다른 중생을 이롭게 하는 나뭇을 나타낸다. 그러나 그 범위가 삼계三界에 미치지 않는다. 그는 “용탕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지만 개구리탕의 전골은 그저 나를 깨달아서 들만 아니면 한다.”³²⁾고 하여 양자를 구분하고 있다. 대행은 둘이 아닌 차원에서 사바세계를 요리하는 것을 개구리탕으로 말하는 것과 달리 하나인 차원마저도 벗어나서 삼계에 나뭇을 용탕으로 규정하고 있다.

바다에 용이 놀더라도 그저 들락날락 손색이 없이, 걸림이 없이 들고 난다 이런 표현, 이 우주 전체 삼라 대천세계를 다 요리를 할 수가 있다 이런 말이죠.”³³⁾

대행은 관법을 중심으로 삶을 이해할 뿐만 아니라 경전 역시 문자적인 이해보다는 자신의 체험을 바탕으로 이해한다. 이러한 그의 태도는 법화경의 일화에 대한 다음과 같은 그의 태도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어떠한 분이 오백 개의 일산을 부처님께 바쳤어요. 오백 개의 일산을 바쳤는데, 뜨거울까 봐 받치는 그런 일산이 아니죠. 견성은 했는데, 둘이 아닌 도리는 알았는데 둘이 아니게 나뭇을 몰랐어요. 그래서 그 일산을, 마음을 다 바친 거죠. 바치니까 그 바친 일산을 가지고는 한 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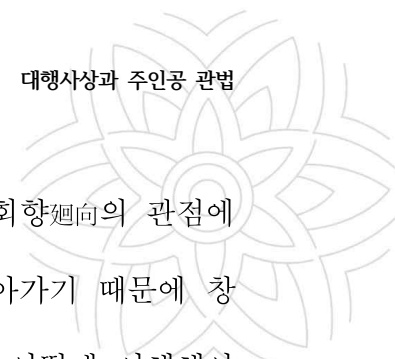
가락에 한 발가락 꼬부리는 거와 같이, 오백 개의 일산을 한데 합쳐 가지고 삼천대천세계와 같이 그냥 요리를 해 버린 겁니다. 그래 가지고 사바세계와 같이 요리를 해서 그 사람한테, 그 주자에다가 주자를 넣으니까, 마음에다 마음을 넣으니까 이거는 그 마음이 아, 홀연히 밝아지고 삼천대천세계를 요리한 거며 뭐 모든 것이 나뭇이며 그런 거를 훨씬 밝게 다 연등이 켜졌다는 겁니다. 밝아졌다 이겁니다³⁴⁾

우리가 요리를 한다고 말할 때는 재료를 사용하여 새로운 요리를 만든다는 의미가 있다. 마찬가지로 대행이 관법을 통하여 삶을 요리한다고 말함은 우리의 삶이 고정된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새롭게 나뭇을 뜻한다. 삶도, 나도, 세계도 고정되지 않기 때문에 그 어떤 것이라고 규정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대행은 삶을 끝없는 창조創造라고 말하기도 하고, 진화進化라고 말하기도 하며, 견성, 성불, 열반의 세 단계를 거치는 과정으로 나타내기도 하고, 어린아이를 낳아서 어른으로 기르는 사건에 비유하여 나타내기도 한다. 그러면 우리가 나뭇과 회향의 두 관점에서 관법은 어떤 관계인가? 나뭇의 관점에서 관법은 주인공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다양한 나뭇 곧 만법의 드러남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뭇의 관점에서 관법은 만법의 창조, 만법의 드러남, 만법의 생성이라고 할 수 있다. 나뭇의 관점에서 관법은 무전자, 유전자, 만법으로 구분하여 나타낼 수 있고, 불성, 자성, 인성人性과 마음 그리고 언행으로 나타낼 수도

32) 『허공을 걷는 길』 정기법회2(2017), 372.

33) 『허공을 걷는 길』 국외지원법회2(2011), 1070.

34) 『허공을 걷는 길』 국외지원법회2(2011), 1071.



있으며, 마음을 중심으로 마음 내기 이전과 마음 그리고 몸으로 나타낼 수도 있다.

회향의 관점에서 관법은 나툼 만법이 주인공으로 귀체歸體하고, 귀공歸空함이다. 그러므로 회향의 관점에서 관법은 만법의 소멸, 주인공과의 합일슴—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회향의 과정을 세 단계로 나누어서 각각 견성·성불·열반으로 나타내기도 한다. 그러나 우리가 삶을 진화의 관점에서 어린아이를 낳아서 기르는 일에 비유하여 나타내지만, 어린아이를 낳아서 어른으로 성장하여 다른 사람과 함께 살아가면서 사람의 역할을 하는 일은 구분하여 나눌 수 없는 일련의 사건들인 점에서 하나의 삶의 과정일 뿐이다.

관법의 나툼과 회향의 두 측면을 시간적 관점에서 과거적 씨와 미래적 열매의 관계를 통하여 살펴보면 씨가 열매를 맺는 방향에서 보면 씨가 변하여 싹으로 화하고, 꽃이 피어서 열매를 맺는 세 과정으로 나누어서 나타낼 수 있다. 이와 달리 열매가 씨로 심어지는 관점에서 보면 싹도 열매의 나타남이고, 꽃도 열매의 나타남이며, 새로 맺어지는 열매도 역시 열매의 나타남이다. 씨와 열매는 본래 둘이 아니지만 단지 우리가 양자를 구분하여 다른 개념으로 나타낸 것에 불과하다. 마찬가지로 관법으로 나타낸 삶의 과정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하여 있다고만 할 수는 없다.

나툼의 관점에서 보면 인간의 삶은 매 순간 안팎에서 일어나는 다양

한 사물의 끊임없는 창조創造, 창발創發로 나타나지만 회향廻向의 관점에서 보면 그 어떤 것도 본래의 자리인 주인공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창조, 창발의 현상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면 양자를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대행은 주인공과의 소통을 통하여 만법이 주인공에서 들고 남을 깨닫는 과정을 밝히고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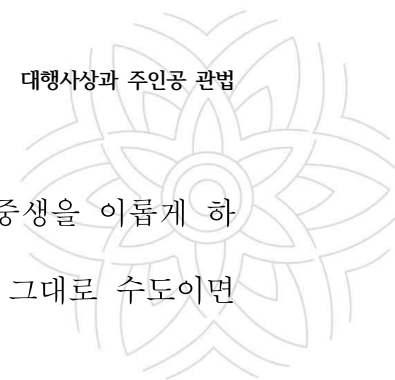
하루는 아주 큼직한 묘지 한 쌍이 있는 곳에서 쉬려는데 불현듯 하나는 아버 묘이고 하나는 자식 묘라는 말이 떠오르더니 “거기 구멍이 뚫렸는데 아버가 이쪽으로 오면 자식이 되어버리고, 자식이 저쪽으로 가면 아버가 되니 이것이 무슨 까닭인가?”라고 했다.³⁵⁾

그는 위의 체험을 통하여 주인공이라는 참 자기와 자신이 둘이 아님을 깨달았다. 이처럼 자성으로부터 주어진 화두를 통하여 둘이 아닌 도리를 파악한 후에는 그는 언제 어디서나 만나는 모든 사물이 둘이 아님을 느꼈음³⁶⁾을 밝히고 있다.

우리는 이 부분을 통하여 관법의 두 측면이 어떤 관계인지를 파악할 수 있다. 그가 자식이 아버지에게로 가서 하나가 되었다는 것은 회향의 측면에서 만법이 주인공으로 귀공歸空, 귀체歸體됨을 나타내고, 아버가 자식으로 가서 하나가 되었다는 것은 나툼의 측면에서 만법이 주인공의 나툼임을 나타낸다. 그런데 회향과 나툼의 측면을 막론하고 아버

35) 『한마음 요전』(1993), 78.

36) 『한마음 요전』(1993), 79.



지와 자식은 둘이 아닌 하나이다. 다만 아버지가 자식으로 와서 하나가 될 때 나툼이 이루어지고, 자식이 아버지와 하나가 되었을 때 회향이 이루어진다. 따라서 그가 주인공 관법을 제시하였지만 나툼과 회향이 둘이 아님을 알 수 있다.

V. 결론

우리는 앞에서 대행선사의 가르침에 나타난 주인공 관법에 대하여 나툼과 회향을 중심으로 고찰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다.

첫째는 대행은 ‘지금 여기 나’를 통하여 부처를 논하고, ‘지금 여기 나’의 삶을 통하여 불교를 논한다. 그는 생명의 근원과 마음 그리고 생명이 삼각원형을 이루면서 돌아가는 ‘지금 여기 나’의 삶을 주인공 관법으로 제시하였다.

둘째는 주인공 관법은 한마음 주인공의 나툼과 회향의 두 측면이 있다. 주인공 관법은 주인공이 인연에 따라서 여러 보살로 화하여 다양한 생명 현상인 중생으로 나투고, 못 생명 현상이 나투었다가 다시 주인공으로 돌아감을 뜻한다. 따라서 회향의 측면에서 관법은 주인공을 향한 만법의 귀공歸空이며, 나툼의 측면에서 관법은 주인공에 의한 만법의 나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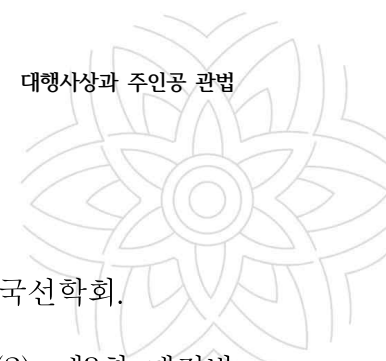
셋째는 주인공 관법은 회향의 측면에서 견성, 성불, 열반의 과정을 거

치는 수행이라고 할 수 있고, 나툼의 측면에서 널리 중생을 이롭게 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주인공 관법은 삶이 그대로 수도이면서 제도임을 나타낸다.

넷째는 주인공 관법은 매 순간 주인공이 만법을 나투지만 만법이 다시 주인공으로 회향함을 나타낸다. 그러므로 만법이 나투어도 나툼이 없고, 회향하여도 회향함이 없어서 나툼과 회향이 자재하다.

다섯째는 주인공은 나툼의 측면에서 세계를 나타내는 주인공과 회향의 측면에서 세계를 나타내는 공空을 하나로 나타낸 개념일 뿐으로 실체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인공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관법 역시 실제적 존재를 나타내지 않는다.

여섯째는 나툼과 회향의 관점에서 보면 ‘지금 여기 나’의 삶은 끊임없이 변화하는 창조의 연속이지만 나타났다가 사라져서 다시 새롭게 나타나는 진화의 연속이다. 따라서 매 순간의 삶, 사건, 나라는 개체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있다고 할 수 없어서 자유자재하다.



[참고문헌]

[1차문헌]

『한마음 요전』(1993), 안양: (재)한마음선원.
 『허공을 걷는 길』 법형제법회 1, 2 (2007), 안양: (재)한마음선원.
 『허공을 걷는 길』 국내지원법회 3 (2007), 안양: (재)한마음선원.
 『허공을 걷는 길』 국외지원법회 1, 2, 3 (2011), 안양: (재)한마음선원.
 『허공을 걷는 길』 정기법회 2, 4 (2017), 안양: (재)한마음선원.

[2차문헌]

각목(2018), 『초기불교이해』, 울산:초기불전연구원.
 아라키 겐코, 심경호 옮김(2000), 『불교와 유교』, 서울:예문서원.
 이현중(2020), 『한국사상과 인간성찰』, 서울:지식과 감성.
 혜선(2013), 『한마음과 대행선』, 서울:운주사.
 賴永海 저, 김진무 역(1999), 『불교와 유학』, 서울:운주사.
 董群 저, 김진무 역(2000), 『祖師禪』, 서울:운주사.
 인순著 이부키 아츠시日譯, 정유진韓譯(2012), 『중국선종사』,
 서울:운주사.
 강문선(2018), 「대행선에 관한 일고」, 『한마음연구』 1, 대행선연구원.
 서정형(2000), 「선불교 수행에 대한 반성」, 『철학사상』 11, 서울대학교

철학사상연구소.

한자경(2013), 「간화선의 철학적 이해」 『禪學』 36, 한국선학회.
 이상호(2019), 「대행선관법의 체계에 관한 고찰」(1), (2), 제3회 계절발표회, 대행선연구원.
 황금연(2019), 「대행선사의 선수행관에 관한 연구」, 제3회 계절발표회, 대행선연구원.
 오지연(2019), 「법화전태교관과 대행선사의 관법」, 『한마음연구』 3, 대행선연구원.
 오용석(2020), 「대행선사의 간화와 주인공 관법에 대한 고찰」, 『한마음연구』 4, 대행선연구원.
 안유숙(2020), 「유식관법과 한마음 주인공 관법의 비교고찰」, 『한마음연구』 5, 대행선연구원.
 이현중(2021), 「나툼과 회향을 통해본 대행의 삼공」, 『한마음연구』 7, 대행선연구원.
 김호귀(2019), 「대행선 수증관의 구조와 원리」, 『한마음연구』 2, 대행선연구원.
 박소령(2019), 「대행의 주인공 관법에 대한 고찰」, 『한마음연구』 2, 대행선연구원.

- 논평 1 -

「대행사상과 주인공관법」에 대한 논문을 읽고

혜선 (대행선연구원)

이현중 교수님의 「대행사상과 주인공관법」 논문은 묘공당 대행선사의 한마음사상과 주인공에 대한 나툼과 회향을 연구하신 훌륭한 논문이라 생각합니다. 대행선연구원의 입장으로서는 이런 관점의 논문 연구가 더욱 활발히 이뤄져서 “대행선의 정체성 정립”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라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더구나 수행도 학문도 많이 미흡한 제가 이 논문을 논평을 하기엔 부담스럽습니다만, 작으면 작은 대로 크면 큰 대로 세상 두두물물頭頭物物 만물만생萬物萬生이 그릇대로 그 역할이 있을 것이기에, 용기를 내어서 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한마음 주인공”사상은 대행선사大行禪師의 종지이자 한마음선원의 근간을 이루며 또한 전부라 하겠습니다. 그리고 ‘회향과 나툼’의 세계에 대한 가르침은 대행선사께서 진리의 세계를 여실지견如實知見해서 그대로 여여하게 요익중생饒益衆生하신 것이라 생각합니다.

불교는 방편설(개방편문開方便門 시진실상示眞實相)이라 방편으로 미혹

을 깨트려야 하니, 언어·문자 이전의 방棒과 활囑로 옛 조사들이 제자들을 제접한 것입니다. 또한, 달을 가리키면 달을 봐야지, 손가락을 보는 어리석음을 범할 수 있으니, 개구즉착開口卽錯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보편적인 중생계는 언어문자로 표현을 해야 이해하고 알 수 있습니다. 혜안慧眼이 열려서 여실지견 하지 않으면 오류와 모순이 따르게 사바세계의 우리네 삶입니다.

그런데 대행선사는 ‘먹으면 배설해야 하듯이 우리네 삶은 늘 회향하면서 살고 있다’고 고구정녕苦口丁寧 일러주셨는데도 미혹하고 어리석은 우둔함으로 인해 알아차리지 못한 채, 집착하면서 고정관념에 갇혀 살고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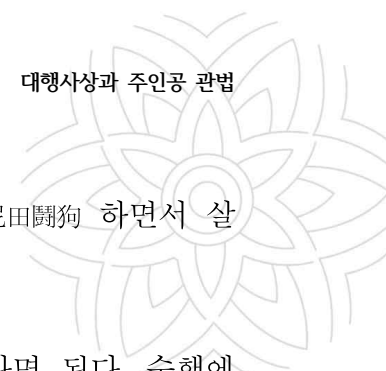
깨달음의 세계는 곧 불교의 불이不二사상, 중생과 부처, 미추美醜, 선악善惡, 호오好惡가 둘이 아니게 그대로 한마음으로 여여하게 동체대비심의 보살도를 실천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본 연구에서는 깨닫고 못 깨닫는 것도 둘이 아닌, 주인공관법 그 자체가 바로 ‘지금 여기 나’의 삶에서 한마음의 나툼이며 회향이라는 관점으로 대행선사의 사상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 논문을 읽으면서 저는

불신보변시방중佛身普遍十方中

삼세여래일체동三世如來一體同

광대원운항부진廣大願雲恒不盡



왕양각해묘난궁 汪洋覺海渺難窮

부처님 지혜의 몸이 온 시방에 널리 두루하니,

과거, 현재, 미래의 여래가 일체 똑같네.

부처님에겐 시방 가득한 서원의 세계가 다함이 없고,

넓고 넓은 부처님의 깨달음의 세계, 아득하고 끝이 없네.

라는 구절이 생각났습니다. 여실지견해서 부처의 세계(관점)에서 보면 처처가 안락국이자 진리의 세계일 것입니다.(수처작주 隨處作主 입처개진 立處皆眞)

논문 발표자의 관점에서는 대행선사 가르침의 세계가 중생과 부처가 둘이 아닌 본래성불사상, 수증불이 修證不二 뿐만 아니라 ‘지금 여기 나’의 삶, 그대로가 여여한 나툼이자 회향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타 학자들과는 다른 관점이라 고무적이라 생각합니다. 논문연구자 본인도 그대로 여일하게 수행정진 하시어 학문과 수행이 둘이 아니게 한마음사상을 실천하면서 원만 회향하시길 발원합니다.

논자의 훌륭한 연구에 몇가지 사족과 그리고 우문으로 부족한 논평을 마치고자 합니다.

1. 우리네 삶, 세상살이는 그대로 여여하게 흐르고 나투면서 회향하고 주인공 자리로, 함이 없이 거두어 들여져 진화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상계 삶에서는 정치계나 사업계 그리고 인간 세상은 권력과 명

예와 돈으로 울고 웃으면서, 불공평한 듯이 이전투구 泥田鬪狗 하면서 살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뭐라 생각하시는지요?

2) 대행선사께서는 우리 모두 부처이니 “믿음” 하나면 된다, 수행에 단계는 없다 라고 하시면서도 중생의 근기가 다 같지 않으니, 단계 없는 단계를 함이 없이 밟아 나가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견성, 성불, 열반의 차제를 말씀하셨고, 나툼은 열반의 단계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최상승 근기의 사람이 그대로 ‘지금 여기 나’의 삶에서 수증불이로 여여하게 살 수 있는, 실천행이 가능할까요?

우문이지만 논자는 현답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 주인공에 대한 설명과 인용은 많은데 한마음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과 예시는 부족한 것 같습니다. 한마음과 주인공의 관계를 좀 더 이해가 편하도록, 보충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3. 54쪽 “대행은 우리의 삶을 과거화 하여 물건적 物件的 관점에서 이해하지 않았고, 또한, 미래화하여 이치·원리의 관점에서 이해하지 않았다.”¹⁾ 라는 인용문에서 물건적 관점과 이치, 원리의 관점이 무엇인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4. 58쪽 “주인공은 마치 허공과 같아 무너지는 일도, 변하는 법도 없으면서 삼계의 모든 것에 나투고 모든 것을 기르고 되돌려 거두어들이기도 한다.” 라는 인용문에서 논자는 “거두어들임은 현상이 본래의

1) 이현중(2020), 392-395.

자리로 돌아감을 나타낸다.” 라고 했는데, ‘순리대로 그대로 여여하게 돌아간다’라는 뜻과 같은 맥락인가요?

5. 60쪽 “사물적 관점에서 그 어떤 분별도 벗어나 있어서 가치상의 우열이 없는 세계를 평등공법平等空法으로 나타내고, 그러한 세계가 고정됨이 없이 끊임없이 변화하여 나뉘는 세계임을 활공공법活宮空法으로 나타내며, 만법이 서로를 존재하게 하는 공생共生, 공존共存의 세계를 수레공법空法으로 나타내고 있다.”²⁾라는 문장에서,

평자의 생각에는 대행선사가 깨달음의 경지(혜안으로)에서 본 세상 이치 즉 진리의 세계를 평등공법, 활공공법, 수레공법으로 설해놓으신 것이라 생각하는데, 사물적 관점이란 게 어떤 뜻인지요?

6. 1) 60쪽 “부처·불성·자성·주인공·한마음이 본성에 의하여 하나의 상태를 고집하지 않고 그 상태에서 벗어나는 것을 평등공법平等空法으로 나타내고, 그것이 타자화他者化하여 수많은 생명현상으로 화함을 나타내는 것이 활공공법이며, 만법의 서로가 서로의 존재근거가 되어 서로를 존재하게 해주는 나뉘는 세계를 수레공법空法으로 나타내었다.”³⁾ 라는 문장의 ‘하나의 상태를 고집하지 않고 그 상태에서 벗어나는 것을 평등공법平等空法으로 나타내고’라는 구절에서 주인공 한마음자리는 여여하게 그대로 나뉘면서 돌아가는 것이 세상 진리인데, 하나의 상태를 고집하지 않는 말과 벗어난다는 표현이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잘못하면 대

2) 『허공을 걷는 길』 일반법회4(2018), 563.

3) 『허공을 걷는 길』 일반법회4(2018), 275-276.

행선사 말씀이 왜곡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 ‘타자화他者化하여 수많은 생명현상으로 화함을 나타내는 것’이 활공공법이라는 구절에서, 세상 만물만생 두두물물이 그대로 여여한 세계 즉 각기 자기 자리에서 세상이 원만히 돌아감을 뜻하는 것 같은데, ‘타자화, 화함’이란 표현도 부적절한 것 같이 여겨지는데 구체적인 설명을 요합니다.

7. 60쪽 “삼공법을 나뉘고 회향의 측면에서 살펴보면 평등공법에서 활공공법을 거쳐서 수레공법에 이르는 방향이 변하여 화하고 나타나는 나뉘는 측면이라면 그 이면에서는 나뉘고 화하여 돌아가는 작업이 함께 이루어진다. 그것은 나뉘는 것이 이루어지는 동시에 다시 부처, 불성, 한마음, 주인공의 자리로 돌아가서(歸) 하나가 되어(一) 사라지는(無) 회향의 과정이다.”⁴⁾라는 문장에서, 우주 만물만생의 현상계는 성주괴공, 생주이멸하는 게 맞지만, 진리의 자리에서는 ‘하나가 되어 사라지는 회향이다’라는 표현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다만 그대로 여여하게 돌아갈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8. 60쪽 “그런데 물건적 관점에서는 나뉘고 회향의 사건을 물건화하여 이해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평등공법을 법신法身으로, 활공공법을 화신化身으로 그리고 수레공법을 보신報身으로 물건화하여 나타낸다. 삼공법을 물건화하여 삼신三身으로 나타내는 까닭은 현상으로부터 본체

4) 이현중(2021), 197-198.

로서의 불성을 찾아가는 회향의 관점이 중심이 되어 보신으로부터 화신으로 그리고 다시 화신에서 법신으로의 진화하는 수행을 논하기 위함이다.”라는 문장에서

1) 물건적 관점, 물건화라는 용어로 삼공법과 연결하여 법신화신 보신으로 비유하고 있는데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2) ‘불성을 찾아가는 회향의 관점’이라는 표현에서도 대행선사의 가르침은 불성 따로 찾아가고 회향 따로 하는 게 아니고, 모든 중생은 본래부터 공생·공심·공체·공용·공식하며 고정됨이 없이 나투고 화하여 살아가건만, 다만 그것을 몰라서 고풍의 길을 걷는다고 하셨습니다.

3) ‘보신·화신·법신에서 진화하기 위한 수행을 논함이다’표현도 너무 자의적인 주장과 표현으로 보입니다.

9. 64쪽 “주인공의 나뉠을 나타내는 법법은 끊임없이 새롭게 자신을 드러내는 창조적 작용이지만 나뉠의 결과로서의 현상은 다시 근원인 불성, 자성으로 귀체歸體, 귀공歸空되는 회향廻向의 측면에서는 일종의 무화無化작용이다. 이처럼 주인공의 나뉠이 다시 주인공으로 귀공되는 것이 회향이다.”라는 문장에서

1) 주인공의 나뉠이 ‘끊임없이 새롭게 자신을 드러내는 창조적인 작용’이라 주장하는데, 창조적인 작용과 진화발전과는 다른 의미인가요?

2) 귀체, 귀공이라는 용어도 생소하지만 귀체라는 표현을 쓰면 정말로 고정되게 정해진 체가 있는 듯 오해할 소지가 있어 보이는데, 논자

의 설명을 요약합니다. 큰스님께서서는 “일심으로 주인공을 찾는다. 그러나 찾고 보면 주인공도 없고 찾는 그 일심도 없다. 그 공한 곳에서 오히려 묘용이 나온다.” 하셨습니다.

3) 58쪽의 ‘거두어들임은 본래의 자리로 돌아감’ 이라는 표현과 여기서의 ‘무화작용’이라는 표현이 같은 뜻인지, 다른 뜻인지 설명을 요약합니다.

10. 67쪽 “견성은 자성을 발견하였지만 본래 자성自性と 내가 하나임을 체득體得 하지 못한 상태이다.” 라는 문구에서 견성은 자성이 발현된(성품을 본) 상태를 뜻하는 것인데, 자성과 하나임을 체득하지 못한 상태이다 라는 표현은 모순이고 비문인 것 같습니다. 설명을 요약합니다.

11. 71쪽 ‘성불의(은) 본래의 자신과 하나가 되는 일이다.’ 구절에서, 본래의 자신과 하나 되는 것이 아니라 첫 번째의 견성을 지나, 단계 없는 단계에서 두 번째의 세상과 더불어 죽는 단계로, 나와 더불어 일체를 버려서 일체를 얻는 소식 이라고 대행선사께서 말씀하셨습니다.

12. 연구자의 논지 중에는 큰스님 말씀인지, 연구자의 서술인지 불분명한 부분도 있는 것 같아서 조금 더 명확한 구분을 요약합니다.

감사합니다.

「대행사상과 주인공관법」에 대한 논평문

이상호 (서강대학교)

논자는 이전에도 이와 유사한 주제의 논문(「나뭇과 회향을 통해 본 대행의 삼공」)을 이미 『한마음연구』(제7집, 2021.8.)에 투고하였고, 이번에 학술회 발표까지 하면서 대행사상에 천착하는 진지한 노력을 보여 주고 있으므로 앞으로도 더욱 좋은 논문이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

그러나 이번 논평은 논평자의 입장뿐만 아니라, 그 논문을 대하는 사람들이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객관적으로 본문의 내용을 분석하여 보여주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부득이 몇 가지 검토사항과 질문으로 논평을 갈음하고자 한다.

참고로 본 논문에서는 대행사상이라고 포괄적으로 말하는데, 논평문에서는 대행선에 국한해서 발표할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뒤에서 다시 언급할 것이다.

익히 알다시피, 대행사상을 어떤 관점, 쉽게 비유적으로 말해서 어떤

색깔의 안경을 쓰고 보느냐에 따라서 각기 성격이 다른 수많은 논문을 생산해낼 수 있다. 사실, 그간 대행선연구원을 통해서 발표된 다양한 관점의 논문들이 모두 각자 나름의 안경을 쓰고 대행선을 바라본 모습이다. 그래서 논문을 대할 때는 먼저 ‘각자가 서로 다른 안경을 쓰고 본다’는 단순한 사실을 전제로 하되, 그로부터 발생하는 ‘다름의 차이’를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 다름의 차이는 결국 대행선의 다양한 성격을 말해주는 것이다. 그러나 그 다름의 차이를 인정하는 데서 그칠 수는 없다. 그 부득이한 차이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그 차이들을 어떻게 하나의 방향으로 수렴해나갈 것인가라는 과제를 동시에 풀지 않으면 안 된다. 그 결과에 따라 대행선을 하나의 전체적인 조화를 이루는 모자이크 그림으로 완성할 수 있는지가 결정 날 것이기 때문이다.

그 완성을 향한 수렴 방향의 기준은 바로 대행선을 얼마나 정확하게 바라보느냐에 달려 있다. 그 정확성을 판단하는 기준은 각자 다를 수 있지만, 여기서는 세 가지로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논문에서 대행선사가 직접 말했다고 하는 친설의 근거가 분명해야 하고, 그것을 인용할 때도 인용문이 확실하게 표시되어야 한다. 또한 그것을 해석함에서도 논거에 의한 논증으로 충분히 객관적으로 납득 되어야 한다.

둘째, 대행선사의 사상 형성에 영향을 끼친 사상들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이것은 결과적으로 대행선이 가지는 위치를 결정해 줄 수 있다. 현재까지 알려진 바로는 대행선사는 대한불교조계종의 전신인 조선

불교조계종의 초대 종정을 지낸 한암(漢巖, 1876-1951)스님의 제자이다. 그러므로 한국선의 영향을 받은 것은 분명하며, 선불교 중에서도 한국선의 한 갈래로 이해하는 것은 전혀 무리가 없다. 따라서 대행선은 선종 사상의 맥락에서 반드시 검토되어야 한다.

셋째, 대행선사만의 독창적인 사상들을 새로이 발굴해내는 작업을 통해서 대행선에 대하여 과거의 계승과 함께 현재의 창조적 성과를 검증할 수 있으며, 나아가 미래의 새로운 방향 설정을 위한 나침반으로 삼을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본 논문은 대행선사의 사상을 논자의 자유로운 사유로 재해석하면서 전개해나가는 매우 도전적인 논문이라고 할 수 있다. 논평자의 입장에서는 앞으로 자유로운 사유에 의한 재해석 방법은 대행선의 사상적 확장을 위해 필요하다고 보지만, 그런 작업은 우선, 대행선 사상의 정체성이 체계적으로 정립된 상태를 전제로 해야 논거의 오류를 줄일 수 있다고 본다. 또한 자유로운 사유적 재해석은 그 장단점이 뚜렷하게 나타날 수 있는데, 대행선사의 사상에 새롭게 접근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줄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부분도 있지만, 자칫 선사상적 맥락에서 벗어나게 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부정적인 영향도 끼칠 수 있다. 특히, 대행선사의 설법에 대한 해석이 선사상적으로 매우 낮설어 보이게 하는 것은 논자의 자의적 해석 때문이 아닌지 재고해 보아야 한다.

본 논문에서 발견할 수 있는 자의적 해석에 대한 문제는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살펴볼 수 있다. 첫째 용어상 문제다. 학문적 용어는 객관적으로 공유하기 위하여 일반 범문과는 달리, 사용하고자 하는 개념의 의미와 범주가 명확히 정의되어야 한다. 본 논문에서 말하는 나툼과 회향, 주인공관법 등에 대하여 기존의 의미와 범주를 벗어나서 사용하려면 각 용어에 대하여 기존의 의미로부터 추출된 새로운 의미와 범주가 먼저 정의되어야 한다.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①제목에서 ‘대행사상’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데, 현재 대행선 사상의 정체성 모색은 대행선연구원에서 선불교를 포함한 불교사상의 전반에 걸쳐 그 접점을 찾고 있으며, 또 다른 한 축에서는 한마음과학원을 중심으로 자연과학 분야와 인문학 특히 교육, 철학, 종교학, 심지어 경제학적 관점까지 그 스펙트럼을 확장 시켜나가고 있다. 만약 대행사상이라고 칭한다면 이와 같은 다방면의 사상들을 아울러 포함하는 것이 적절한데, 본 논문의 범위는 선불교의 범주를 벗어나지 않으므로 제목을 바꾸는 것도 한 방법이다.

② 회향廻向에 대한 불교사전적 정의는 회전취향廻轉趣向의 줄임말로 ‘자기가 닦은 선근공덕善根功德을 다른 곳으로 향하여 돌린다’는 뜻인데, 사홍서원도 회향 의식으로 볼 수 있다. 이런 점에서 나툼도 회향의 궁극적인 표현형식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본 논문에서는 회향을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p.58)이라

하므로 주체적 범주를 벗어나지 않으며, 또한 나뉠과 대응하는 입장에서 사용하므로 일반적인 의미와는 다른데 이에 대한 설명은 각주라도 붙이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인다.

③ (p.54)“그는 ‘지금 여기 나’의 삶을 통하여 불교를 논하고, ‘지금 여기 나’를 통하여 부처를 논하며, ‘지금 여기 나’의 삶을 통하여 종교를 논하고, 진리를 논하였다.”라 하고, 또한 ‘지금 여기 나’가 중생과 부처의 틀을 벗어나 있다고 말하는데, 이때 ‘지금 여기 나’의 개념이 중생과 부처 외 또 다른 상태를 의미하는 것처럼 묘사되고 있다. 이 ‘지금 여기 나’의 의미가 굳이 중생 및 부처와 분리되어야 할 이유가 논증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뒤에서 다시 검토할 것이다. 그 외에도 본문 중에는 각 용어의 사용법이 대행선에서 말하는 기존의 용법과 다른 점이 있는데, 이에 대한 논거와 논증을 갖추는 것이 적절할 것이라고 본다.

둘째, 대행선사의 범문을 새로운 사유적 개념으로 구조화시켜 나갈 때, 대행선의 사상적 기반인 선불교 사상에 대하여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만약 선사상과 모순된다면 별도로 그에 합당한 논증을 통해 객관적으로 밝혀야 비로소 설득력을 가질 수 있다. 그렇지 못할 경우 자칫 대행선 사상의 정통성에 의문을 가질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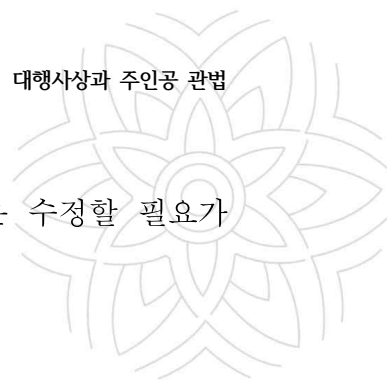
셋째, 인용문에 대한 문제다. 인용문의 의미구조에 대한 해석은 대

행선사가 말한 본래 뜻에 최대한 근접하되, 만약 그것과 다른 의미구조라면 별도로 설명되어야 한다. 그리하여 인용문의 의미와 논자의 해석 간 경계를 분명히 구분 지을 필요가 있다. 사실 이런 조건 때문에 논문을 쓸 때 자유로운 사유적 해석에 제약을 받으면서 논거와 논증으로 논술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부딪히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각주 6번의 범위가 ‘pp.1159-1178’로서 상당히 광범위한데, 이럴 경우 대행선사의 뜻을 전달하는 논자의 주장을 객관적으로 받아들이기가 까다로워진다.

이상에서 살펴본 것을 좀 더 자세히 다루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본 논문에 대한 질문과 검토사항으로 논평에 갈음하고자 한다.

〈질문사항〉

질문1) 본 논문은 그간의 연구 성과들이 주로 수행의 측면에서만 관법을 연구하였다고 주장하고 ‘대행선사가 제시한 생활법으로서의 주인공 관법이 무엇인지를 고찰한다’고 밝히고 있다. 본래 조사선을 중심으로 하는 선사상은 수행과 증득이 둘이 아닌 수증불이修證不二를 바탕으로 하고, 극단적으로는 수행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도불용수道不用修나 평상심시도平常心是道 등의 관점에서 생활선을 표방하는 것이 기본적인 맥락인데, 이 조사선의 생활선적 경향과 논자가 주장하고자 하는바, 나뉠과 회향의 관점에서 생활법으로서 주인공관법 간에 같은 점과 차이점은 무엇인가?



〈검토사항〉

1) p.55. “대행은 고정됨이 없이 나투고 돌아가는 세계를 한마음으로 나타내어 지금 여기의 삶을 한마음의 나툼과 회향으로 밝히고 있다.”¹⁾

☞ 논자의 주장에 따르면 “대행선사가 고정됨 없이 나투고 돌아가는 세계를 한마음으로 나타낸다”고 한다. 그러나 이것은 인용문에서 판단해볼 때 대행선사의 말과는 전혀 다르다. 인용문에서는 “모든 사생의 일체, 만물 만생의 근본이 하나로 뭉쳐서 시공 없이 돌아가는 그 자체를 한마음이라 하니...”라고 되어 있다.

이 두 문장의 차이점을 살펴보면 먼저, 논자가 해석한 한마음은 ‘고정됨이 없이 나투고 돌아가는 세계’라고 하는데, 이때 ‘세계’라고 말하면 하나의 대상이 되어버리므로 결과적으로 한마음 자체를 하나의 대상으로 만들어 버리는 결과가 된다. 그러나 한마음은 그런 대상으로 존재하는 세계가 아니다.

이에 반해 대행선사가 말하는 한마음의 정의는 ‘근본이 하나로 뭉쳐서 시공 없이 돌아가는 그 자체’를 한마음이라고 하였으므로 이것은 근본과 근본의 작용 그 자체를 동어반복적으로 한마음이라고 말한 것이다. 그것은 한마음이라는 별도의 세계를 설정하여 대상화시킨 것이 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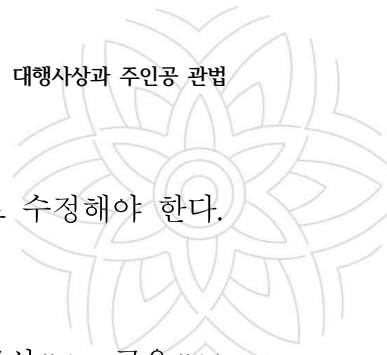
1) 『한마음 요전』(1993), 321-322.

니다. 따라서 대행선사의 말을 오해할 수 있는 문장은 수정할 필요가 있다.

2) p.57. “①그는 “모든 중생은 본래부터 화하여 나투고 돌아간다.”고 말한다. ②그가 말하는 중생은 장차 부처가 될 수 있지만 ③지금은 부처가 아닌 중생이 아니라 부처와 중생이라는 고정된 틀을 벗어나 때로는 부처로, 때로는 보살로, 때로는 중생으로 화하여 나투고 돌아감을 뜻한다. ④따라서 그가 말하는 중생은 ‘지금 여기 나’를 가리키는 개념이다.”

☞ 위 문장에서 ①“모든 중생은 본래부터 화하여 나투고 돌아간다.”는 말은 대행선사의 말이 아니다. 이 문장은 「뜻으로 풀 반야심경」에서 인용한 것이며, 원문은 “모든 중생들은 본래부터 공생共生, 공심共心, 공용共用, 공체共體, 공식共食하며 고정됨이 없이 나투고 화하여 돌아가건만 그것을 몰라서 일체 고히의 길을 걷나니라.”라고 되어 있다. 이 원문을 논자가 임의로 간략히 줄여서 쓴 문장인데 결과적으로 완전히 다른 뜻이 되어버린다.

논자가 줄여서 인용한 문장과 원문의 차이는 “공생共生, 공심共心, 공용共用, 공체共體, 공식共食하며 고정됨이 없이” 라는 부분을 생략함에 따라 발생한다. 이것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의 차이는 무엇일까? 다음과



같이 두 가지로 생각해볼 수 있다.

(1) 그 문장이 들어있는 원문은 모든 중생들이 나쁠 때 주인공과 들이 아닌 불이법不二法이 성립한다. 그러나 그 문장을 생략한 인용문은 주인공과 불이법이 드러나지 않고 단순히 현상만 기술한 것이 된다. 이것을 그 뒤에 이어지는 문장과 연관관계 속에서 생각해 보면 그 차이가 훨씬 명백하게 드러난다.

즉, 인용문 뒤에 “그것을 몰라서 일체 고통의 길을 걷나니라”는 문장이 이어지는데 원문은 중생과 주인공의 불이법임을 몰라서 괴로움의 길을 걷는다고 하므로 그 말이 성립하지만, 인용문과 같이 그것을 생략할 경우에는 ‘모든 중생이 본래부터 화하여 나투고 돌아간다’는 그 현상을 몰라서 일체 괴로움의 길을 걷는다는 말이 되어버리므로 괴로움의 원인이 되는 근거가 없어져 버린다.

(2) 논자가 임의로 줄인 첫 번째 문장에서 주어가 ‘중생은’이기 때문에 ‘화하여 나투게 만드는 주체는 중생’이라는 뜻이 되어버린다. 따라서 원리적으로는 ‘주인공이 중생을 통해 화하여 나뉜다’는 뜻임에도 불구하고, 논자가 인용문으로 쓴 문장은 ‘중생이 화하여 나투는 것’이라는 뜻이 되어 버린다. 두 번째 원문의 본래 뜻을 보면 ‘나투게 만드는 주체는 주인공’이고, 그 주인공이라는 말이 문장에서 생략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여지가 생긴다. 그 이유는 중생이 공생, 공심 등으로 고정됨이 없이 나투고 화하여 돌아간다는 말이 있고, 그 말은 곧 주인공의 특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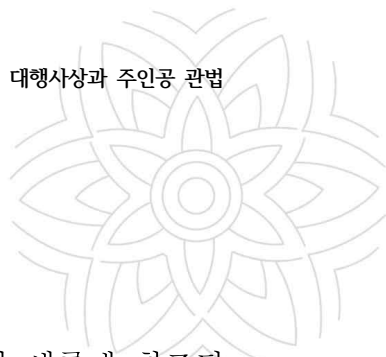
을 말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문장은 반드시 원문대로 수정해야 한다.

①의 원문, 즉 “모든 중생들은 본래부터 공생共生, 공심共心, 공용共用, 공체共體, 공식共食하며 고정됨이 없이 나투고 화하여 돌아가건만”이라는 문장으로 미루어 보면, 선종에서 말하는 모든 중생들은 본래성불의 연장 선상에 있으므로 번뇌 즉 보리, 색즉시공色卽是空 등과 같이 불이법不二法이 성립하기 때문에 중생과 부처의 연속성을 말한다.

그러나 논자가 ②에서 “중생은 장차 부처가 될 수 있지만”이라고 말하는 것은 중생과 부처의 불연속성을 말하기 때문에 본래 성불을 말하는 대행선사의 뜻과는 완전히 상반되는 말이 되어버린다. 이는 대행선사의 말을 왜곡시키는 결과가 되므로 수정해야 한다.

③에서 “지금은 부처가 아닌 중생이 아니라 부처와 중생이라는 고정된 틀을 벗어나 때로는 부처로 때로는 보살로 (...) 돌아감을 뜻한다”는 문장도 대행선사의 말씀으로 수용하기 어렵다. 위 인용하려는 원문에서 핵심 내용은 ‘모든 중생은 본래부터 공생共生, 공심共心, 공용共用, 공체共體, 공식共食한다’는 것이고, ‘고정됨이 없이 돌아간다’는 것은 어떤 변하지 않는 실체로서의 모습이 아니라는 말이다.

그런데 그것을 “때로는 부처로 때로는 보살로 때로는 중생으로 화하여 나투고 돌아감을 뜻한다”고 말하는 것은 특정 한 개체의 고정되지



않은 모습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개체의 동시다발적인 현상을 말할 수도 있으므로 서로 관점이 다르다. 예를 들면 고정됨 없이 나투고 화하여 돌아간다는 의미는 어떤 사람이 집에서는 아들이면서 아빠가 되기도 하고, 직장에서는 상사이면서도 동료나 부하직원이 되는 것과 같이 생활 속에서 한 사람이 여러 가지 다른 역할을 하게 된다는 비유로 설법한 경우가 많다. 그러나 논자의 해석에 따르면, 어떤 중생은 부처로, 다른 중생은 보살로, 또 어떤 중생은 중생으로 화하여 나뉜다는 의미로 읽히는 오해의 소지가 있으므로 정확하게 의도하는 문장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

③의 이전 문장을 근거로 ④의 문장인 “따라서 그가 말하는 중생은 ‘지금 여기 나’를 가리키는 개념이다.”라고 결론을 추론하는 것은 필연적인 논리적 관계를 확인하기 어렵다. 대행선사가 말하는 중생이 왜 ‘지금 여기 나’를 가리키는 개념인지 쉽게 납득이 되지 않는다. 만약 ‘지금 여기 나’라고 하더라도 ‘지금 여기 나’라고 하는 고정된 실체가 있을 수 없기 때문에 별다른 의미가 없으므로 ‘지금 여기 나’를 중생과 구분시키는 것은 대행선사의 뜻이라고 말하기 어렵다.

4) p.58. “①나툼의 측면에서 보면 주인공은 끊임없이 새롭게 창조되어 나타나며, ②회향의 측면에서 보면 주인공은 현재화한 창조 작업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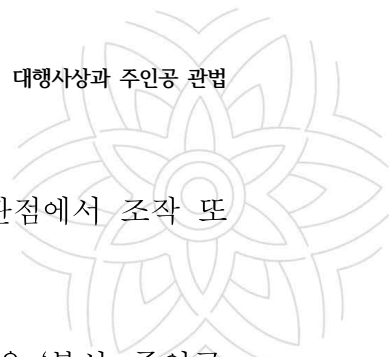
과거화 하고 다시 미래로 돌아가서 무화無化된다.”

☞ ①에서 “나툼의 측면에서 보면 주인공은 끊임없이 새롭게 창조되어 나타나며”라는 문장을 있는 그대로 문법적으로 해석하면 주어인 주인공이 ‘끊임없이 새롭게 창조되어 나타난다’는 말이 되는데, 이는 선사상적 입장에서 받아들이기 어렵다.

『반야심경』에서 공소는 불생불멸不生不滅 이라고 하는데, ‘주인공이 새롭게 창조되어 나타난다’고 하면 결국 ‘주인공은 불생불멸의 공이 아니다’는 말이 되어버린다. 또한, 주인공이 새롭게 창조된다는 것은 ‘모습을 지닌 것’이 되는데, 이는 공소가 ‘모습을 떠난 것’이라는 전제에도 어긋난다.

②에서도 문장을 문법 그대로 해석하면 주인공에게 현재화, 과거화, 미래화라는 시간성을 부여하게 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공의 무시무중無始無終의 성격에 어긋나는 개념이다. 논자가 의도하는 대로 정확하게 문장 수정할 필요가 있다.

5) p.60. “①부처·불성·자성·주인공·한마음이 본성에 의하여 하나의 상태를 고집하지 않고 그 상태에서 벗어나는 것을 평등공법平等空法으로 나타내고, ②그것이 타자화他者化하여 수많은 생명현상으로 화합을 나타내는 것이 활공공법이며, ③만법의 서로가 서로의 존재근거가 되어 서



로를 존재하게 해주는 나툼의 세계를 수레공법空法으로 나타내었다.2)”

“㉔어보, 나 어디 줌, 이러이러해서 급한데 갔다 오겠소.” 하고 갑니다. 이것도 마음의 조작입니다. 마음의 작용입니다. 이 마음의 작용을 잘 파악해서 다스려서 넣을 거는 넣고 맡길 거는 맡겨야 합니다. 맡겨야 굴려서 다시 나오니까, 바깥으로.

㉕그래서 세상에서 이 평등하게 돌아가는 거를 평등공법이라고 했습니다. 평등공법. ㉖이 평등공법에는 더하고 덜함도 없는 것입니다. ㉗그러나 사람의 마음이 차원에 따라서 천차만별로 돼 있기 때문에 칠황궁공법, 이 몸과 마음과 뜻이 같이 삼합이 돌아가서 내가 똥 누겠으면 똥 누고 배고프면 밥 먹고 졸리면 잠을 잘 수 있다. ㉘이 만사 만생이다 어디고 동서가 따로 없이 돌아가는 이치에서 생활이 팔수레공법이라고 합니다. ㉙이 모두를 따져 볼 때 이거를 합쳐서, 삼합을 합쳐서 모두 응용하고 계십니다.”

대행선사는 인용문의 ㉔에서 이 현상계가 마음의 조작이라 하고, 이 마음의 작용을 다스리거나 맡기거나 굴려서 다시 나오는 것 등을 말한다. ㉕에서는 ㉔의 내용을 “이”라는 대명사를 사용하여 “이 평등하게 돌아가는 거를 평등공법이라고 했습니다.”라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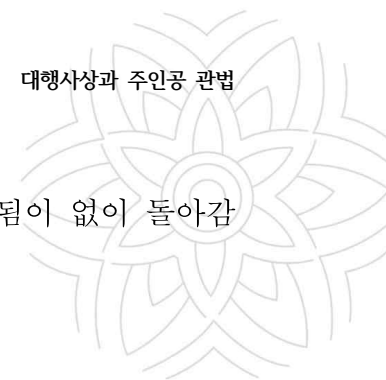
㉔와 ㉕를 종합해서 볼 때 문맥상 ‘평등하게 돌아가는 것’을 말하는 평등공법은 첫째, 마음의 조작 또는 작용과 둘째, 다스려서 넣거나 맡기는 것 셋째, 굴려서 다시 나오는 것 등 이 세 가지가 평등하게 돌아가

는 것을 뜻한다. 이것은 중생의 마음이 주체가 되는 관점에서 조작 또는 작용과 맡김, 다시 나오는 것 등을 말하고 있다.

이에 반해서, 논자가 ㉑의 문장으로 해석한 평등공법은 ‘불성, 주인공, 한마음’이 주체가 되는 관점에서 한마음 주인공 등이 하나의 상태를 고집하지 않고 그 상태에서 벗어난다 하고, 그것을 평등공법이라고 하는데, 이 말 자체가 기본적으로 성립하지 않는다. 한마음 주인공 등은 본래 변화가 없는 것이므로 어떤 상태를 고집하는 일도 없고, 또 그 상태를 벗어나는 일도 없기 때문이다. 그런 한마음의 성격으로 인해 중생심이 한마음에 귀의하여 고집하는 일도 없고 벗어날 수도 있는 것이다. 따라서 논자가 말하는 평등공법은 대행선사의 말이나 사상과는 완전히 다른 말이 되어버리므로 수정이 필요하다.

6) p.60-61.에서 “그런데 물건적 관점에서는 나툼과 회향의 사건을 물건화하여 이해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평등공법을 법신法身으로, 황궁공법을 화신化身으로 그리고 수레공법을 보신報身으로 물건화하여 나타낸다. 삼공법을 물건화하여 삼신三身으로 나타내는 까닭은 현상으로부터 본체로서의 불성을 찾아가는 회향의 관점이 중심이 되어 보신으로부터 화신으로 그리고 다시 화신에서 법신으로의 진화하는 수행을 논하기 위함이다.”

2) 『허공을 걷는 길』 일반법회4(2018), 275-276.



☞ 삼공법은 우선 인용문에서 나오는 칠활공법, 팔수레공법, 등의 개념이 정립되어야 정확한 논거를 펼칠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칠과 팔이라는 숫자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명확해질 때 삼공법의 기본적 의미가 정립되고, 그것을 바탕으로 응용 개념들의 정확성을 판단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 ‘삼공법을 물건화하여 삼신三身으로 나타낸다’고 하거나 법신, 보신, 화신 등을 물건화하여 나타낸다는 말은 선불교적 의미에서 이해하기가 매우 어렵다. 그것은 대행선사가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논자의 주장이므로 엄격하게 구분하여 객관적으로 논증해야 한다.

7) p.62. “삼공법이 나타내는 화하여 나투고 돌아가는 나툼과 회향의 세계는 변화의 세계이다.”

☞ 삼공법이 공소를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위 주장과 같이 나툼과 회향이 변화의 세계라고 말하는 것은 공의 성격상 ‘변화하지 않음’을 배제하고 단편적으로 현상계에 대해서만 말하는 것이 되므로 왜곡의 소지가 생긴다. 삼공법에 대한 전체적인 의미를 전제로 논자의 주장을 펼칠 필요가 있다.

8) 이때 주인主人은 “한마음이 나의 주인이자 모두의 주인이고 삼계의 주인임을 나타내며, 공소는 고정됨이 없이 화하여 나툼을 뜻한다. 따

라서 주인主人은 하나의 자리를 나타내고, 공소는 고정됨이 없이 돌아감을 뜻한다.”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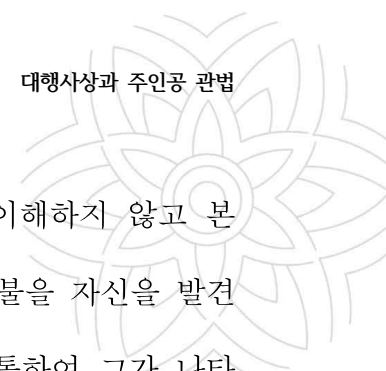
☞ 논자가 인용표시한 문장은 각주18)에 표시된 원문과는 다른 문장이다. 원문은 다음과 같다.

“주인공은 나의 주인이자 모두의 주인이요, 삼계의 주인이다. ‘주’한 것은 근본 자리를 말하고 ‘공’한 것은 고정됨이 없이 돌아가는 것을 말한다.”

논자의 인용문과 원문의 다른 점을 살펴보면, 우선 ①논자는 공소가 고정됨이 없이 화하여 나툼을 뜻한다고 하는데, 이는 논자가 임의로 추가한 단어가 포함되어 있다. 대행선사는 ‘공은 고정됨이 없이 돌아가는 것’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논자의 말과 대행선사의 말은 서로 의미하는 바가 확연히 다르므로 있는 그대로 인용해야 한다.

②논자는 “주인主人은 하나의 자리를 나타내고”라 말하고, 대행선사는 “‘주’한 것은 근본 자리”라고 말하는데 이 두 문장은 완전히 다른 문장이다. 본래 의미로 볼 때, 주인은 하나의 자리가 아니라, 대행선사의 말처럼 근본 자리를 의미하며, 이때 ‘자리’는 자리라고 할 수도 없는 것을 부득이 표현한 것일 뿐이다. 그러나 논자의 말처럼 ‘하나의 자리’라고

3) 『한마음 요전』(1993), 319.



개념화시키면 자리를 특정한 개념으로 받아들일 우려가 있다.

따라서 인용문은 반드시 원문 그대로 인용하여야 하고, 임의로 바꾸면 결국 논문의 전체적인 왜곡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9) p.63. “그가 ‘지금 여기 나’를 중심으로 세계를 나타내기 위하여 사용하는 주인공이라는 개념은 세계의 측면에서는 변화의 세계를 나타내는 동시에 ‘지금 여기 나’의 측면에서는 나의 삶을 나타낸다.”

☞ ‘주인공이 변화의 세계를 나타낸다’고 하는 논자의 말도 오히려 반대로 기술한 내용이다. 이 세계가 변화하는 것이고, 그 변화하는 세계의 본원이 변화하지 않는 공이라는 의미에서 주인공主人空이므로 대행선사의 뜻을 제대로 반영한 문장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문장은 재고해야 한다. 만약 주인공을 공의 관점이 아닌 현상계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불교는 사성제인 제법무아諸法無我和 제법무상諸法無常을 기본 전제로 연기법을 말하는데, 본 논문에서 ‘지금 여기 나를 중심으로 하는 세계를 나타내기 위해 주인공이라는 개념을 사용하였다’고 말하는 것은 불교 교리와 대행선사의 뜻과는 오히려 상반되므로 재고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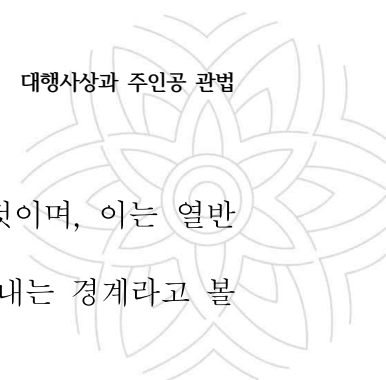
10) p.67. “견성은 자성을 발견하였지만 본래 자성自性和 내가 하나임을 체득體得하지 못한 상태이다.”

p.71. “그러므로 그는 견성성불을 유위법有爲法으로 이해하지 않고 본래의 나인 한마음의 나됨으로 이해한다. 그가 견성, 성불을 자신을 발견하여 자신이 되는 과정으로 이해하기 때문에 관법을 통하여 그가 나타내고자 하는 삶은 나됨의 경계인 열반에 있다. 그는 열반이란 그 어떤 것으로부터 벗어나거나 얻는 상태가 아니라 자신으로 살아감을 나타낸다.”

☞ 견성은 자성과 내가 하나임을 체득할 때 경험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성에 대한 관점이다. 그렇지 않고 단지 이해로만 자성을 아는 것을 지해종도知解宗徒라고 하여 선가에서는 매우 비판하는 것이다. 따라서 ‘견성은 자성과 내가 하나임을 체득하지 못한 상태’라는 구절은 올바르게 수정되어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이같이 견성, 성불, 열반을 자신의 문제로 그 범주를 축소하는 경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이것은 대행선사가 견성은 주인공의 발견, 성불은 자타불이, 열반은 일체와 나됨 등으로 말한 것과 다른 해석이므로 대행선사의 뜻이라고 받아들이기 어렵다.

11) “그것은 무심無心の 단계를 넘어서 공심共心에 이르게 되면 온 우주의 모든 존재와의 소통이 이루어지는 동시에 함께 하는 삶이 시작됨을 뜻한다.”



☞ 무심이라는 말은 선사사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말이다. 그러나 공심共心이라는 말은 대행선사의 사상에서 나온 말이므로 대행선사의 사상적 체계 속에서 ‘무심의 단계를 넘어 공심에 이르게 된다’는 논거가 분명하게 제시되어야 한다. 또한, 일반적인 견해로는 공심이기 때문에 무심인데 무심 위에 다시 공심을 말한다면 옥상옥屋上屋이 되어 버리므로 무심과 공심이 포함되어 있는 오공법五共法 간의 관계 설정이 먼저 전제되어야 한다.

12) p.69. “결국, 그가 제시하는 열반의 경계는 실제적인 차원이 아니라 끊임없이 확장하는 변화의 경계임을 알 수 있다.”

☞ 열반의 경계를 끊임없이 확장하는 변화의 경계라고 하는데, 이는 납득하기 어렵다. 본래성품 즉 주인공의 특징 중 하나는 부동심不動心이다. 『반야심경』에서도 말하듯이 늘지도 않고 줄지도 않는 경계이다. 그런데 주인공을 전제로 하는 열반을 끊임없이 확장하는 변화의 경계라고 말한다면 전반적인 선사상에 어긋나게 된다.

대행선사에 따르면 “열반의 경지에 이르렀다는 생각조차 놓아버렸을 때가 무여열반이니 무여열반에 이르러야 유여열반으로 돌아올 줄도 아는 것이다.”(『한마음요전』, 1993, p.594) 라고 말하므로 이것으로 미루어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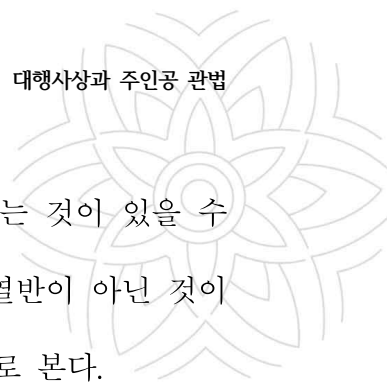
때, 대행선사의 열반의 개념은 무여열반이 궁극적인 것이며, 이는 열반의 경지조차 놓아져 버린 것이니 그 어떤 변화를 나타내는 경계라고 볼 수 없으므로 논자의 해석은 재고되어야 한다.

특히, 논자는 ‘변화’의 개념으로 본 논문을 관통하는 하나의 핵심개념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변화가 현상계의 특징이라는 점을 전제로 한다면, 그 개념과 견성, 성불, 열반 등을 설명할 때 부동심을 간과하면 선사상적 오류를 범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13) p.70. “대행은 한마음의 회향의 관점에서 주인공 관법을 견성見性, 성불成佛, 열반涅槃의 세 단계로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그는 세 단계를 단계 아닌 단계라고 말한다.⁴⁾ 그것은 그가 비록 이전의 수행 단계에 따라서 세 단계로 나타냈지만 하나임을 뜻한다.”

☞ 본 논문에서 회향의 관점은 p.64.에서 “주인공으로 귀공되는 것”이라고 하였고, 그렇게 주인공으로 귀공시키는 수행이 바로 ‘주인공관법’인데, 그 수행법을 증득의 단계인 견성, 성불, 열반의 세 단계로 나누는 것은 수행과 증득의 경계를 구분하지 않는 것이고, 이는 객관적인 논리라고 볼 수 없다.

4) 『한마음 요전』(2016), 575.



14) p.70. "이처럼 '지금 여기 나'와 둘인 견성, 성불, 열반은 다시 수행과 제도, 깨달음과 깨닫지 않음, 부처와 중생이라는 분별을 낳게 된다. 견성과 성불을 구분하여 나타내면 반드시 깨달음과 닦음, 앎과 실천이 하나인가 둘인가의 문제가 제기되고, 다시 성불과 열반이 둘인가 하나인가의 문제가 제기된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어떤 사건이나 물건도 고정되지 않기 때문에 변화의 관점에서 이해함이다."

☞ 우선 "'지금 여기 나'와 둘인 견성, 성불, 열반"이라고 하면, 견성이라고 말하면서 실제로는 견성이 아닌 것을 견성이라고 말하는 것이고, 성불이라고 말하면서도 실제로는 성불이 아닌 것을 말하는 것이며, 열반이라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열반이 아닌 것을 열반이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 견성, 성불, 열반이라는 말 자체가 이미 자성과 '지금 여기 나'를 비롯한 일체 모든 법이 하나로 뭉쳐져서 그렇게 뭉쳐진 것도 없는 것을 의미하는데, 다시 '지금 여기 나'라는 개념으로 견성, 성불, 열반과 둘이 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오류가 생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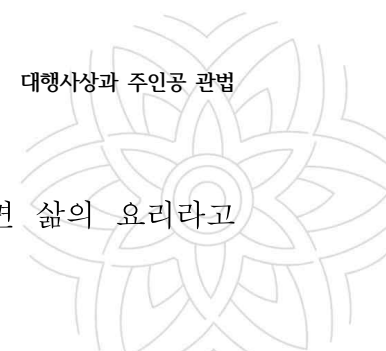
그것은 대행선사가 견성의 의미를 '부자상봉'이라고 비유한 것으로 이미 알 수 있으며, 견성 이후의 성숙의 단계인 성불, 열반은 더 말할 필요가 없다. 견성, 성불, 열반이라고 하면 그것에 이미 지금 여기 나라는 것도 부자상봉으로 인해 내세울 수 없는 것이며, 또한 이미 아공我空,

법공法空을 성취한 것이기 때문에 다시 지금 여기 나라는 것이 있을 수 없다. 그것이 별도로 있다면 그것은 이미 견성, 성불, 열반이 아닌 것이다. 따라서 그 이하의 논리적 전개도 재고해야 할 것으로 본다.

15) p.71. "그가 견성, 성불을 자신을 발견하여 자신이 되는 과정으로 이해하기 때문에 관법을 통하여 그가 나타내고자 하는 삶은 나툼의 경계인 열반에 있다", "그는 열반이란 그 어떤 것으로 부터 벗어나거나, 얻는 상태가 아니라 자신으로 살아감을 나타낸다. (……) 그는 한마음의 나툼의 관점에서 견성과 성불, 열반을 모두 일상의 삶으로 이해한다. 그것은 대행이 삶의 과정에서 만나는 안팎의 모든 일을 처리하는 과정을 견성, 성불, 열반으로 구분하여 나타냈을 뿐으로 별개로 이해하지 않음을 뜻한다."

☞ 대행선사에 따르면 자신을 발견하여 자신이 되는 과정은 견성의 단계이고 그것이 성숙되어 자타불이의 단계는 성불의 단계이며, 일체와 더불어 나투는 단계를 열반이라고 한다.

그런데 논자는 견성, 성불이 '자신을 발견하여 자신이 되는 과정'이라고 하고, 열반이 자신으로 살아감을 나타낸다고 말하는 것은 성불과 열반의 개념을 자신의 범주로 축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 자신으로 살아가는 것은 이미 견성 단계부터 시작되는 것이기 때문에 어린아이로 비



유하였고, 대행선사가 제시한 열반은 자기만이 아니라 일체와 더불어 나투는 단계이므로 훨씬 성숙한 단계이기 때문에 어른으로 비유한 것이므로 논자의 열반에 대한 해석은 수용하기 어렵다.

“부처님께서 “견성을 했어도 했던 말 하지 말라”고 하셨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어린애를 방금 낳은 거와 같으니까 말입니다. 그래서 어린애를 낳은 것을 돈오頓悟라고 한다면, 어른이 될 때까지 길러지는 것은 점수漸修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 길러져서 어른이 된다면 그거는 성불이라고 하겠죠, 어른이 됐을 때.⁵⁾”

이와 같이 본 논문에서 견성, 성불, 열반 등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시도하기 위해서는 논거가 정확하지 않으면 대행선사가 말하는 뜻과는 전혀 다른 의미로 전개되어 버릴 수 있다.

또한 ‘대행선사가 견성, 성불, 열반을 구분하여 나타냈을 뿐으로 별개로 이해하지 않음을 뜻한다’는 주장도 대행선사의 뜻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납득할 만한 논거와 논증이 필요하다.

16) p.71. “대행이 견성과 성불 그리고 열반을 일상의 삶의 과정일 뿐이라고 말하는 것은 바로 일상의 삶이 한마음의 ‘나툼’임을 뜻한다. 그는 한마음의 나툼의 관점에서 우리가 일상의 삶을 살아감을 요리한다고

5) 『허공을 걷는 길』 정기법회4(2017), 325.

말한다. 따라서 견성, 성불, 열반을 한마디로 나타내면 삶의 요리라고 할 수 있다”,

p.72. “대행이 일상의 삶 가운데 안팎으로 만나는 모든 일을 요리한다고 말하는 것은 주인공 관법을 통하여 삶을 살아감을 뜻한다.”

☞ 논자는 대행선사가 “견성, 성불, 열반을 한마디로 나타내면 삶의 요리라고 할 수 있다.”고 말하면서도 그 다음에는 “대행이 일상의 삶 가운데 안팎으로 만나는 모든 일을 요리한다고 말하는 것은 주인공 관법을 통하여 삶을 살아감을 뜻한다.”고 말하는데 이를 통해서 볼 때 견성, 성불, 열반이 삶의 요리이고 주인공관법도 삶을 요리하는 것을 뜻한다고 이해된다.

이와 같은 말들이 반드시 틀렸다고 할 수는 없지만, 견성, 성불, 열반 등은 증득으로서 그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반면에, 주인공관법은 수행방편이므로 불경佛經에서 뗏목의 비유처럼 증득 후에는 버려져야 한다. 더구나 선종 조사선의 선풍에서는 도불용수道不用修라 하여 수행방편의 불필요성을 강조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수행 방편의 영속성을 전제로 논지를 펼치는 것은 전통적인 선사상과 일치하지 않는다. 따라서 수행방편인 주인공관법과 증득으로서 견성, 성불, 열반은 서로 다른 범주에 속하므로 구분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특히, 본 논문에서는 주인공관법과 견성, 성불, 열반의 개념을 경계가



명확하지 않은 상태로 동일 선상에서 파악하려는 경향이 있어서, 이는 대행선 수행법에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즉 주인공관법은 견성, 성불, 열반에 이르기 위한 방편으로 그칠 것인가 아니면 견성, 성불, 열반에 관계없이 주인공관법만 수행하면 견성, 성불, 열반과는 상관이 없는 것인가라는 의문에 봉착하게 된다. 이런 점에 대하여 논자의 입장을 분명히 밝힐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으면 주인공관법의 실천적인 수행 방편적 개념이 하나의 이념적인 개념으로 전환되어버리는 현상이 생길 수 있다. 그로 인해 수행의 단순성을 오히려 복잡한 이론적 개념으로 변형시킴에 따라 수행법에 혼란을 초래할 수도 있다. 그 예로서 본 논문의 주인공관법과 나툼과 회향의 관계를 설명할 때 주인공관법에 대한 설명이 고유한 의미와 범주를 벗어나 관념화된 것을 찾아볼 수 있다.

“그러면 우리가 나툼과 회향의 두 관점에서 관법은 어떤 관계인가? 나툼의 관점에서 관법은 주인공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다양한 나툼 곧 만법의 드러남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툼의 관점에서 관법은 만법의 창조, 만법의 드러남, 만법의 생성이라고 할 수 있다. 나툼의 관점에서 관법은 무전자, 유전자, 만법으로 구분하여 나타낼 수 있고, 불성, 자성, 인성(人性)과 마음 그리고 언행으로 나타낼 수도 있으며, 마음을 중심으로 마음 내기 이전과 마음 그리고 몸으로 나타낼 수도 있다. 회향의 관점에서 관법은 나툼 만법이 주인공으로 귀체(歸體)하고, 귀공(歸空)함이다. 그러므로 회향의 관점에서 관법은 만법의 소멸, 주인공과의 합

일습—이라고 할 수 있다.”(p.76)

이는 주인공관법이 나툼과 회향과 동일한 개념인가? 라는 의문을 갖게 한다. 대행선에서 나툼은 깨달음 후 세 번째 단계로 설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첫 번째 단계인 견성에 이르기 전의 수행과정으로서 주인공관법이 그 세 번째 단계인 나툼과 서로 동일 선상에서 취급될 수 있다면, 수행과정이 혼란스러워질 수 있다. 만약 견성 이후에도 주인공관법이 계속 필요하다면 주인공관법과 견성 그리고 성불과 열반 등의 관계에 대한 논거와 논증이 제시되어야 한다.

용어는 서로 약속된 범위 내에서 사용하여야 소통이 가능해지고 만약 그 의미와 범주를 벗어나서 자기 나름대로 정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논거에 의한 논증을 거쳐서 독자를 설득시킬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과정이 생략된 용어사용은 비록 설법에서는 가능할지라도 학문적 용어로 사용할 때는 자칫 주관적인 표현에 그칠 우려가 크다. 이런 이유로 설법 속에서 일정한 구조와 체계를 찾아내어 이론적 체계로 정립하는 학문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